

문화 서울

2026 01 VOL. 227

문화+서울



1



《근접한 세계》
서울시립미술관은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과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을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40여 명(팀)의 회화·영상·설치 등 다양한 작품 110점을 통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대미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가 압축된 현대 사회에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 타자, 사물, 역사, 그리고 개별 세계가 근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탐구한다.
3월 29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02.2124.8800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
총무아트센터 갤러리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보노보노의 원작자 이가라시 미키오의 원화를 만날 수 있는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이 총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만화 원고, 그림책 원화부터 서울의 한강을 배경으로 한 초대형 원화까지 300여 점이 공개된다.
3월 29일까지 | 총무아트센터 갤러리
02.730.9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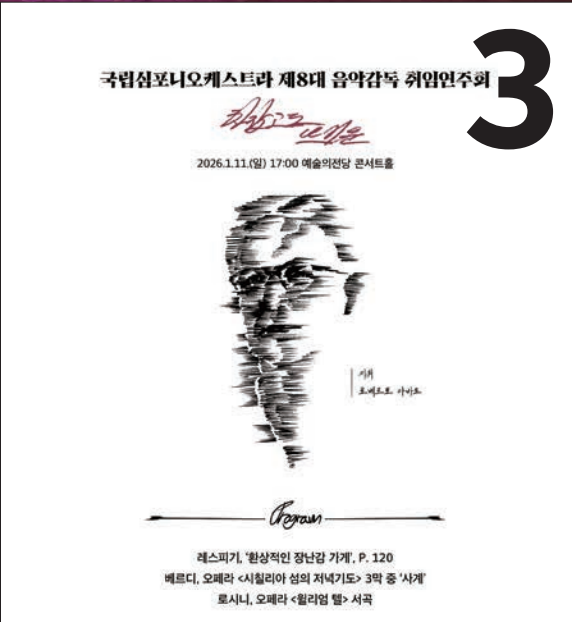
연극 《땅 밑에》
2025-2026 쿼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선정작 《땅 밑에》가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한국 SF를 대표하는 작가 김보영의 동명 단편 소설 '땅 밑에'를 원작으로 한 연극으로,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정혜수가 연출을 맡았다. 배우 없이 3D 오디오 기술과 앰비언트 음악 요소, 조명을 활용한 작품으로, 관객은 헤드폰을 중심으로 한 사운드 경험을 통해 공간을 '직접' 탐색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 대학로극장 쿼드

2



‘다정한 아트라운지’ 겨울 시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다정한 안부와 함께 예술을 선물하는 ‘다정한 아트라운지’ 상설 체험과 전시를 새해까지 이어간다. 인근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일상과 예술이 맞닿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곳은, 현재 오달근 작가가 겨울을 연필로 산책하듯 표현한 연필 드로잉 신작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둘러보면 어떨까.
2월 28일까지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 02.3785.3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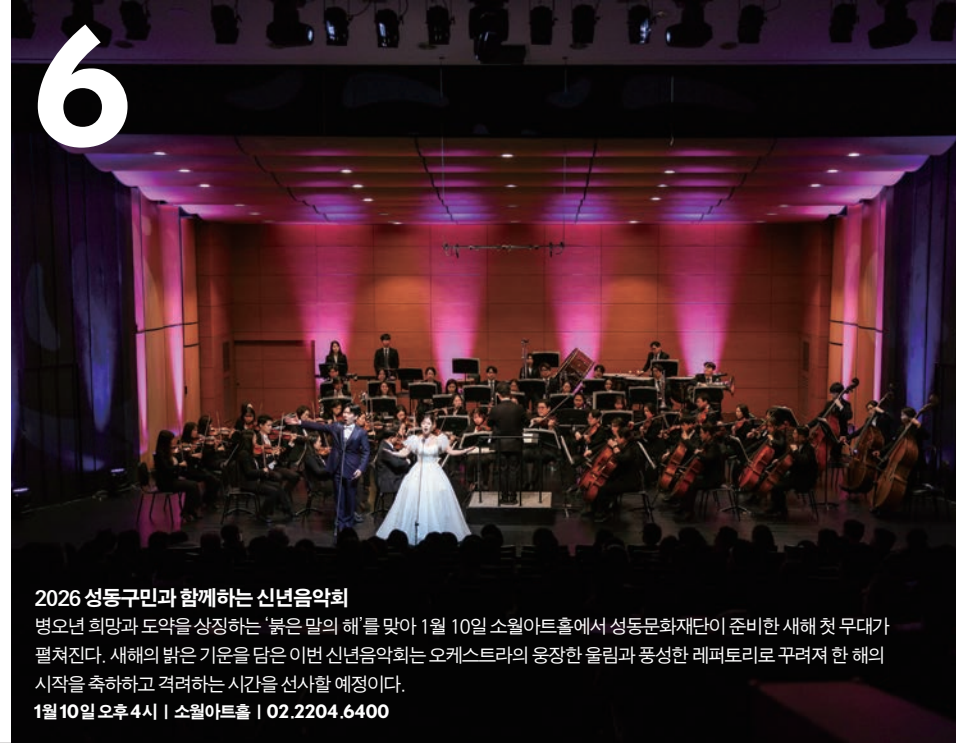
3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8대 음악감독 취임연주회
2026.1.11 (일)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레스피기,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 P. 120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3막 중 '사계'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8대 음악감독 취임연주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제8대 음악감독 로베르토 아바도의 첫 연주회 1월 열린다. '차갑고도 뜨거운'이라는 주제로 시즌 레퍼토리를 준비했으며, 새로운 페이지의 첫 장을 펼쳐 보일 예정. 레스피기 '환상적인 장난감 가게'를 시작으로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3막 중 '사계'를 들려주며,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으로 마무리한다.
1월 11일 오후 5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523.8947

6



2026 성동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병오년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10일 소월아트홀에서 성동문화재단이 준비한 새해 첫 무대가 펼쳐진다. 새해의 밝은 기운을 담은 이번 신년음악회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울림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꾸러져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월 10일 오후 4시 | 소월아트홀 | 02.2204.6400

7



MMCA 아이공간<마음_봄>
MMCA 열린교육공간+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현대미술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교육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어린이 가족을 위한 전시<마음_봄>이 열리고 있다. 현대미술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간으로, '마음 이어봄', '마음 마주봄', '마음 서로봄'으로 나뉜 세 개의 공간에서 오유경·조소희 두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즐길 수 있다.
2월 27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교육동 2층 | 02.3701.9500

8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은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2019년 초연 이래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민새롬 연출을 비롯해 박승원 음악감독, 손상규·김신록·김지현·윤나무 배우 등 모든 창작진이 합류해 작품을 둘러싼 깊은 신뢰와 예술적 유대를 증명한다.
1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 070.4190.1289

10



복합극 <환어>
금천구의 문화유산인 정조와 시흥행궁을 소재로 한 시간여행 역사 판타지 드라마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금천문화재단이 직접 제작해 선보이는 공연이다. 지난해 초연 당시 높은 호응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김태형 연출가와 장우성 작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다시 의기투합해 뮤지컬 요소를 강화했다.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9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피아노 리사이틀
'완전무결의 전설'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독주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그가 직접 챙긴 피아노 세팅과 세밀한 조율을 통해 오롯이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곡가가 남긴 '전주곡'을 중심으로 꾸린 특별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1월 13·15·18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070.8680.1277

11



2026 국립극장 신년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신명 나는 우리 장단으로 새해의 시작을 맞이한다. 올해 신년 음악회는 나윤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개봉 100주년을 기념한 위촉 신작 '아리랑, 세 개의 숨'(작곡 홍민웅)으로 시작해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위한 협주곡(편곡 박위철)으로 이어진다. 가야금 신동으로 주목받은 김영랑이 협연할 예정이다. 판소리와 서도민요를 대표하는 두 소리꾼 김준수와 추다혜의 협연도 기대를 모은다.
1월 9일 오후 7시 30분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04

05



국립극장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극단 미추의 <홍길동전>을 만든 원조 제작진의 손에서 재탄생한 국립극장 마당놀이가 25년 만에 귀환한다. 조선 시대 대표 영웅 서사인 『홍길동전』을 마당놀이 특유의 풍자와 유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겪은 불합리한 세상을 청년실업·사회적 단절·불평등 등 오늘날의 현실 문제들과 교차시켜 풀어내며,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웃음과 흥 속에서 정의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긴다.
1월 31일까지 | 국립극장 하늘극장 | 02.2280.4114

©정강인/국립극장



《올해의 작가상 2025》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5》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온 현대미술 작가후원 프로그램이자 수상 제도인 '올해의 작가상' 전시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2025년 후원 작가 김영은·임영주·김지평·엔메이크랩은 각기 다른 매체와 언어를 통해 감각되지 않는 것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1월 중 최종 수상자가 발표되며, 전시는 2월 초까지 이어진다.
2월 1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새해의 첫 장을 넘기며

10
대화
“매력도시 서울의 역할은”
송형중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6
리포트 REPORT
열 가지 ‘연결’의 가치로 돌아보는
2025년 서울문화재단
Ten Values of “Connection”
SFAC’s 2025 in Retrospect

26
메시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
예술가들의 새해 인사

30
예술가의 진심
시인 신해옥, 연결의 감각

36
예술인 아카이브
라움콘

38
예술인 아카이브
솔솔

40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재단 주니어보드에게
듣는 이야기

45
인사이드
희곡, 언제나 새로운 상상력으로
제3회 서울희곡상 수상자 김유경

48
트렌드
AI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해외는 지금
우리 모두 다 같이,
2025 K-BOOK 페스티벌

COLUMN

54
명곡의 뒤편길
여운, 끼어들 여지가 없는

56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
티켓을 누르자, 추억이 하나둘 새어나왔다

58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줍는다
끝에서 마침내 시작되는 것
—꼬트머리에서 만물 상상하기

60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서울, 이질적인 충돌이 만드는 참신함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COVER STORY

눈 내린 노들섬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수많은 발자국의 흔적처럼 이곳을 오가는 모든 분들이 예술로 풍성한 일 년을 보내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 제공 서울관광재단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1월 2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새해의 첫 장을 넘기며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며 예술의 가치를 되새겨온
 서울문화재단은 한 해의 결실을 누리며 또 새로운 일 년을 시작한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송형중 대표와 만나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목표를
 나누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력도시 서울의 역할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25년은 서울의 위상이 격변한 해다. 아무도 예상 못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에 걸친 메가톤급 히트 덕이다. <케데헌>에 서울성곽·명동·남산타워 같은 서울의 명소가 비친 덕에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퍼센트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1월부터 7월 까지 누적 관광객 수도 82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래지 트래블’Trazee Travel’ 선정 ‘MZ 세대에 가장 사랑받는 도시 1위’,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 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 선정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관광객만 찾는 건 아니다. <케데헌> 이전인 지난 4월 ‘현존 최고의 안무가’로 꼽히는 존 노이마이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방위 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 컨템퍼러리 발레 거장 요한 잉에르 등이 동시에 서울을 찾았고, 11월엔 클라우스 메켈레와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 필하모닉,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연달아서 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서울이 K-팝의 성지를 넘어 ‘예술도시’로도 뜨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문화재단 송형중 대표도 조바심이 났을 법하다. 시민이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즐기게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향하는 ‘매력도시’에 바짝 다가선 시점인 만큼, 예술가를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의 역할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1일 취임해 1년을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을 송형중 대표를 만났다. 서울연극협회장을 지낸 연극 연출가 출신으로, 2년간 서울시 문화수석으로 일하며 도시 브랜딩에 앞장서온 그는 진정한 ‘서울다움’을 만들어가는 데 ‘예술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지난 한 해 <케데헌> 덕분에 재단에서도 많이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해외 관광객이 가고 싶은 도시 2위로 꼽혔는데, <케데헌> 덕분에 정점을 찍었죠.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매력적인 것이 준비돼 있는가 조바심이 컸습니다. 한류는 대중예술 중심이지, 순수예술의 매력은 아직이라고 생각되니까요. 한류의 깊이를 고민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6000년 도시, 600년 도읍이잖아요. 그만큼 깊이 있는 도시란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짓과 생각이 근현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기초예술이 근간이 돼 정말 긴 여정을 거쳐 나왔다는 걸 알리려고 하니 숙제가 많더군요.”

직전에 서울시에서 문화수석으로 일하면서 예술을 한 셈인데요.

“그때는 서울시장의 시점에서 문화를 바라봤으니 뭐든 서울의 브랜드라는 큰 덩어리를 망원경을 통해 본 거죠. 재단에서는 핵심이 예술가인 만큼,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킬 것인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술가도시를 만들려면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오자마자 10개 장르별 예술

가들을 만나고 22개 기초문화재단을 직접 찾아갔죠. 서울은 1개인 동시에 25개의 서울, 467개의 서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5개 자치구가 저마다 공간의 서사를 살려서 자치구별 색깔을 입힌다면 서울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을 어떻게 더 알리면 좋을까요.

“BTS가 이매방의 삼고무를 알렸고, 케데헌이 서울성곽을 알렸잖아요. 대중문화도 의미가 있지만, 매력도시 서울의 핵심과 본질을 알리는 데 우리 예술가들이 할 일이 많아요. 가시적인 한류 현상을 지켜내려면 기초예술의 깊이를 더하는 게 우선입니다. K-컬처 300조 시대를 실현시키려면 기초예술 1조 시대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저는 ‘서울다움’이란 용어를 써서 서울의 매력을 설명하는데, 현장 예술가에게 제일 중요한 서울다움은 문화유산 안에 흐르는 장인정신이라 생각해요. 과연 지금 시대에 장인이 있는가부터 고민해야죠. <서편제>에서 득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처럼, 연극·무용도 근본적 깊이를 보여줄 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겁니다.”

올해 재단은 서울어텀페스타를 야심 차게 시작했다. ‘공연 예술, 서울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4일부터 40일간 서울에서 벌어지는 116편 공연과 축제 띄우기에 매진했다. 서울이 역사상 가장 ‘핫’해진 지금, 자타공인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콘셉트의 축제가 생기고 또 사라졌지만, 송 대표는 ‘민간 주도형’을 어텀페스타만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간을 주체로 내세워 정체성을 이어가게 한다는 취지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나 아비뇽 페스티벌, 파리가을축제처럼 역사와 전통의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서울어텀페스타가 출범했는데, 첫 회라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

“재단에 오자마자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았죠. 논으로 치면 물꼬를 터줘야 하잖아요. ‘연결하다’, ‘이어주다’를 올해의 키워드로 삼은 이유죠. 현장에서도 늘 예술가들이 홍보와 유통을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고, 그걸 대신할 플랫폼이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오랜 기획을 거쳤다면 좋겠지만, 육을 먹더라도 지

금 시작해야 한다고 봤어요. 7월에 아비뇽과 파리를 직접 돌아보며 서울의 위상이 대단하단 걸 느꼈거든요. 아비뇽도 내년에 한국어를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하면서 서울에 프리포즈를 하더군요. 파리가을축제를 15년간 이끌고 있는 에마뉘엘 드마르시 모타 감독을 만나고 나니 이걸 지금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가을축제가 53년이 됐으니, 서울은 최소한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작해야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10월 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행사에 비가 내렸는데요.

“야의 행사 특성상 날씨와 안전 문제는 늘 긴장되게 하는 요소죠. 개막 직전까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장비·조명·무대 동선까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담당자들이 잘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치렀죠. 오히려 비가 내려서 시민과 예술가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특별한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내년엔 한강과 연계해 시민들과 더 건강하게 만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첫 회 결과는 만족하시나요.

“우리의 차별점은 140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도와주셔서 브랜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예술가들에게 체감 가능한 혜택을 드렸느냐 하는 면에서는 미흡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70일, 후년에는 100일간으로 확대하고, 당장 킬러 콘텐츠를 제작할 겁니다. 서울어텀페스타 기간에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간을 자체 제작 콘텐츠나 초청 공연으로 채우는 거죠.”

글로벌 공동제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요.

“얼마 전 도쿄도역사문화재단과도 MOU를 맺었지만, 국제 교류는 한류의 깊이 유지에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1998년에 국제극예술협회ITI 사무국장을 하면서 국제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했고, 서울연극협회에 있을 땐 동유럽까지 진출했죠. 그때 예산 2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후배들이 아부다비, 이집트 연극제까지 뻗어나갔어요. 우리 재단의 미션은 기차에 레일을 까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중앙아시아에 가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열차 37호>를 공연했듯이, 예술가들

을 태워 보낼 수 있는 레일을 해외로도 깔아 나갈 겁니다.”

내년 70일, 후년 100일로 확장한다니 기간이 너무 긴 건 아닌가요.

“서울어텀페스타는 일반 축제와 달라요. 파리는 118일 동안 하더군요. 지리멸렬하지 않게 서사를 잘 만들어야겠죠. 초반엔 에든버러 프린지처럼 진행하고, 후반엔 마켓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대표적인 작품들로 라인업을 꾸리고, 마지막엔 국제 포럼과 해외 초청작까지 올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 공연예술의 얼굴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술감독이 필요하지 않나요.

“서울어텀페스타는 현재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감독을 임명하면 사적인 시점으로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까진 직접 촘촘히 설계하고, 3회째엔 뽑으려 해요.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본래 취지를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죠.”

현장 예술가 출신으로 재단 운영에 딜레마도 있겠죠.

“예전에 서울연극협회 부회장을 할 땐 서울문화재단에게 예산이 적다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막상 대표가 되고 보니 당시 대표의 입장이 곧바로 이해되더군요.(웃음) 공공의 여러 측면을 고민할 때 부딪침이 많을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은 자리더라고요. 당장은 현장 예술가들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하는 일인가가 제 기준이에요. 유럽의 웬만한 국가와 비슷한 크기인 서울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게 사명감, 역사 의식이라 생각해요. 미래전략실을 만들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책자문위원회도 꾸렸는데, 서울의 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해요.”

송 대표는 연극인 특유의 기질과 연출가로서의 감각을 적재적소에 발휘하는 아이디어맨이다. 올해 서울문화재단 소셜미디어 채널 트래픽이 10배 폭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던 광복 80주년 기념 노들섬 태극기 전시를 비롯해 서울 거리예술축제에 역사와 건강까지 더해 리모델링한 ‘아트레킹’, 원로예술가 지원사업에 멘토링 콘셉트를 끼여어 청



년 세대와 만남을 주선한 ‘마스터피스 토크’ 등 재단의 인
기 사업 대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문화 향유를 일상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건강까지 행
기는 거리예술축제 ‘아트레킹’처럼요.**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오사카 마라톤대회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마라톤과 먹거리를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거리예술축제도 아트와 건강을 연결하자는 아이디어를 얻었죠. 청계천 복원 20주년까지 포함해서 청계천의 서사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봤는데, 그 기간에 하필 비가 와서 속은 상했지만, 그 와중에도 16만 명이 나왔다갈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저는 우리 재단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의 니즈에 도전하고 축제도 시민에게 발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강 변에서 한강버스까지 연결한 아트레킹을 구상하고 있어요.”

성장형 예술지원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하셨죠.

“통계에 따르면 예술대학 졸업생 중 현장에 뿌리내리는 비율이 18퍼센트밖에 안 되더군요. 대학 재학 중에도 공공에서 손 내밀어 잡아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커넥트 스테이지’를 만들었고, 마지막 원로예술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터피스 토크’를 만들어 원로와 청년 예술가의 멘토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설계했습니다. 처음에 미술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작가분들이 너무 만족하시면서 누구 아이디어냐고 물었다더군요. 거기 힘입어서 무용·국악·연극 쪽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창작 거점 공간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죠.

“오세훈 시장 1기에 기존 공장들을 개조해 금천예술공장·문래예술공장 같은 창작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접근성보다 노후화가 문제예요. 예술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김치가 익어가듯 몰입할 공간이 마련돼야 하죠. 공간에 대한 예산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하고, 거기서 정말 서울의 장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성장형 지원체계는 단계별로 장인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와 같이 가야 하는 게 공간지원이에요. 공간마다 서사가 있거든요. 서울연극창작센터의 경우 1층은 블랙박스, 2층은 프로시니엄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블랙박스에서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공간의 서사에 답해야 하고, 거기서

서울다운 예술가들이 탄생해야 합니다. 접근성 문제는 기부채납에 근거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시민의 예산을 들어서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인 거죠. 궁극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어딘가 좋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면 관객들은 찾아간다고 봅니다.”

서울국제예술포럼이 처음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대중음악을 평가하는 빌보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리시수처럼 해외에는 여러 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도하는 플랫폼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 2027년도엔 글로벌 문화예술 트렌드를 우리가 선정하자는 목표로 서울국제예술포럼SAFT을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예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뇌과학자가 바라본 예술’ 같은 외부의 시선에서 배울 점이 많더군요. 근본적인 예술에 대한 질문도 던져야겠고요. 그런 성찰과 담론을 생산해내는 포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올해 22개국 100개 예술단체와 교류하면서 새삼 느낀 것이 있다면요.

“서울이 트렌드를 답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도시나 장단점이 있지만, 우린 무조건 따라 하는 데 익숙하다가 갑자기 대중문화가 뜨니까 그동안 잘한 건가 하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예술가도 많거든요. 재단의 국제 교류는 ‘서울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서울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랜 역사의 깊이만큼 예술가가 긴 호흡으로 장인처럼 빚어내는 예술이 많이 나오도록 재단이 움직여야겠죠.”

송형중 대표는 내년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도약을 선포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속에서 뉴욕·베를린의 역할이 있듯 서울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고, 서울다움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세계 5위 도시를 선언하셨으니, 재단도 그 기준으로 예산도 세워야죠. <만선>이란 연극 제목을 참 좋아해요. 잔잔한 바다에선 고기가 안 잡히니까 태풍이 불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는 겁니다. 바다가 뒤집힐 때 고기도 잡히는 법이니까요. 문화예술도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 가지 ‘연결’의 가치로 돌아보는

TEN VALUES OF “CONNECTION” SFAC’S 2025 IN RETROSPECT

도시에는 수많은 선이 존재한다. 도로와 강줄기처럼 눈에 보이는 선도 있지만, 생태계의 순환고리나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산, 세계로 이어지는 문화 교류까지. 도시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선의 연결로 발전한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시는 단절과 고립의 시기를 겪었다. 그때의 경험을 교훈으로, 이제 ‘연결성’의 회복은 분열된 도시를 치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는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적용된다. 2025년 서울문화재단은 ‘연결’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재단의 사업을 재정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예술창작 지원체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다듬어 예술 현장과 잇고, 멈춰 있던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었으며, 시민의 일상에 예술적 접점을 확대해갔다. 지난 한 해, 재단이 연결의 가치를 통해 빚어낸 결실을 열 가지 이야기로 짚어본다.

Countless lines exist in a city. Like roads and river courses, some are visible, and others are not: ecological cycles, human relationships, heritage connec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cultural exchanges connecting the world. Cities develop through these invisible lines. However, the recent COVID-19 pandemic forced cities to go through a period of disconnection and isolation. Learning from that experience, restoring “connectivity” has now become the top priority for healing a divided city. This applies to the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as well. In 2025,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 focused on reorganizing its programs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l stability, with “connection” as its core value. It refined its art creation support system to be more effective by connecting it to the art scene, reopened the floodgates for international exchanges that had been halted, and expanded artistic touchpoints in citizens’ daily lives. Here are ten stories showcasing the results of SFAC’s efforts through the values of connection over the past year.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장르별로 특화된 신규 거점 공간 2곳을 개관하며 지역의 창작 인프라를 연결하는 장르별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공연예술의 심장부인 대학로에는 서울연극창작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존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대학로극장 퀴드·서울연극센터와 함께 대학로 일대에 지원과 창작, 발표와 관람을 아우르는 공연예술 클러스터가 완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대학로 소재 3개 극장(대학로극장 퀴드·서울씨어터101·서울씨어터202)의 정기 대관을 통합 공모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서울 서북권에 국내 유일 무용 전용 공공 공연장을 갖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문을 열었다. 연말까지 이어진 개관 페스티벌에는 예술가 600여 명이 참여해 총 32개 프로그램이 쉼 없이 이어졌고, 총 6천여 명 시민이 다녀갔다. 이곳은 인근에 있는 서울무용센터·은평문화재단과 협력해 서울 서북권을 무용예술의 새로운 거점으로 나아가게 할 계획이다.

이

장르 특성 살린
새 공간,
창작 현장을
연결하다
NEW GENRE-
SPECIFIC
SPACES,
CONNECTING
THE CREATIVE
SCENE

Last year, SFAC opened two new genre-specific hubs and established genre-specific clusters that connect regional creative infrastructure. Together with the existing SFAC Daehakro Center, Daehakro Theater QUAD, and Seoul Theater Center, the addition of the Seoul Theater Creation Center in Daehak-ro—the heart of performing arts—finally completed the performing arts cluster in the area, encompassing support and creation, as well as presentation and viewing. Based on this, the regular rental system for three Daehak-ro theaters (Daehakro Theater QUAD, Seoul Theater 101, and Seoul Theater 202) will be reorganized into an integrated open call system this year. In addition, the Seoul Culture & Arts Education Center Eunpyeong opened its doors in northwestern Seoul, featuring the nation’s only public venue dedicated to dance. The opening festival, going on until the end of the year, featured over 600 artists and a total of 32 nonstop programs, attracting a total of over 6,000 citizens. This center plans to collaborate with the Seoul Dance Center and Eunpyeong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to establish northwestern Seoul as a new hub for dance art.



2023년 재단은 청년예술지원사업과 원로예술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예술가의 경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나아가 지난해에는 예술가의 성장 경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형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먼저 예술대학 졸업자 중 실제로 예술계로 진입하는 비율이 18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에 착안해 예비 예술인의 첫 무대를 지원하는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신설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예비예술인에게는 공연료와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 네트워킹, 시민과 전문가의 리뷰까지 지원하며 예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반의 과정을 돕는다. 다가오는 1월 26일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여러 공간에서 이들의 첫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반면, 한평생 예술과 함께해온 원로예술인을 위한 ‘마스터피스 토크’도 처음 선보였다. 원로예술인이 시민과 후배 예술가에게 그들의 작품 세계부터 예술가로서의 생애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거장으로서 이들의 예술적 공로와 삶의 궤적을 조명하는 동시에 모두가 기억해야 할 공공의 기록을 전하는 뜻깊은 시도로 현장의 호평을 받았다.

02

예비부터
원로까지,
생애주기에
꼭 맞춘 예술지원
ARTISTIC
SUPPORT FOR
EVERY CAREER
STAGE, FROM
ASPIRING TO
VETERAN

In 2023, SFAC established artistic support programs for young artists and veteran artists, completing an entire support system for every stage of an artist’s career. Moreover, last year, it focused on building a “growth-oriented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support tailored to the artist’s developmental path. Recognizing the fact that only 18% of art college graduates actually enter the art world, SFAC established “Seoul Connect Stage” to support aspiring artists’ first performances. It provides selected aspiring artists with performance fees and rehearsal spaces, as well as support in the form of promotion, networking, and reviews from citizens and experts, to help them navigate the overall process of entering the art scene with stability. Their first performances are scheduled to take place starting January 26 at various spaces operated by SFAC.

On the other hand, the “Masterpiece Talk” program, designed for veteran artists who have dedicated their entire lives to the arts,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t is a program in which veteran artists share all about their artistic worlds and careers with citizens and junior artists. It was well-received in the art scene as a meaningful attempt to highlight these masters’ artistic contributions and life trajectories, while conveying public records that everyone should remember.

연간 170억 원 규모로 재단이 지원하는 500여 건 예술 작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예술지원정보포털 ‘스파크SPAC’가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포털사이트로서 스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 정보를 등록해 작품 소개와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의 언어로 채워진 이 누리집은 현재까지 약 350건의 작품 정보와 50여 건의 리뷰가 등록되며 발 빠르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홍보 채널이자 시민에게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술을 발견하는 새로운 공공 예술 정보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은다.

03

지원을 넘어
예술을 기록하다
DOCUMENTING
ART, GOING
BEYOND
SUPPORT

The “Seoul Portal of Approved & Curated (SPAC)” was officially established last July, serving as a portal to view information on over 500 artworks supported by SFAC, worth 17 billion KRW per year. SPAC’s defining feature as a portal is that artists can directly register information on their works, including descriptions and keywords. This website, filled with artists’ own words, is swiftly fulfilling its purpose, with approximately 350 works and over 50 reviews registered so far. It is highly anticipated to become a trusted digital promotion channel for artists, as well as a new public art information platform for citizens to discover works that suit their tastes.



재단이 운영하는 시상 제도인 ‘서울예술상’은 지난 1·2년 차에 수행한 발굴과 인증의 기능을 넘어, 지난해에는 유통과 확산까지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2025년 10월부터 두 달간 1·2회 수상작 2편이 재단의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투어링 K-아츠’ 사업과 연계해 유럽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서울의 예술을 유럽 무대에 알렸다. 이는 창작 지원에서 나아가 시상을 통한 인증을 거쳐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수한 화곡을 발굴하고 공연 발표까지 잇는 ‘서울회곡상’은 지난 공모에서 265 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현장의 열띤 관심을 증명해냈다. 한편, 재단의 문학 웹진 [비유]는 그간 이마상·함윤이 등 문학계 새로운 얼굴 찾는 데 집중하며 신진 작가의 새로운 창작 터전으로 견고히 자리잡았다.

04

예술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
A VIRTUOUS
CYCLE IN THE
ART CREATION
ECOSYSTEM

The “Seoul Arts Awards,” an award system operated by SFAC, has gone beyond its initial discovery and certification functions in its first and second years. Last year, it further broadened its potential, now including distribution and proliferation. With SFAC’s support, linked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KOFICE’s “Touring K-Arts,” two award-winning works from the first and second Seoul Arts Awards toured eight European cities from October 2025 for two months, introducing Seoul’s arts to European stages. This holds special significance, as it realized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progresses from creative support to distribution, through certification via awards.

Also, “Seoul Playwriting Award”-which is involved in the discovery of outstanding plays, and all the way to the performance announcement-has set a record-high competition rate of 265 to 1 in its recent call for submissions, proving the art scene’s fervent interest. Meanwhile, SFAC’s literary webzine “View”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new creative platform for emerging writers, focusing on discovering fresh faces in the literary world, such as Misang Lee and Yuni Haam.

K-콘텐츠의 성공에 힘입어 이제 서울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25년 재단이 처음 개최한 ‘서울국제예술포럼(Seoul, Arts, Future, Talks, SAFT)’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예술계가 당면한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공론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서, 서울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동시에 여러 예술 선진국의 사례를 교류하는 장을 이뤘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창작지원과 축제를 통해 22개국 100여 개 해외 예술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이를 기점으로 삼아 올해부터 파리·뉴욕·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문화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울이 글로벌 문화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05

서울에서 세계로,
담론을 확장하다
**EXPANDING
DISCOURSE,
FROM SEOUL
TO THE WORLD**

Thanks to the success of K-content, Seoul is now being reborn as a global city that captures the world's attention. In 2025, SFAC held the very first "Seoul, Arts, Future, Talks (SAFT)," creating a global public forum to discuss challenges and the future facing the art world, centered on Seoul. Going beyond a mere academic conference, thi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Seoul's experiences with the world, while exchanging insights with leading countries in the arts. Last year, SFAC continued active exchanges with over 100 overseas arts organizations from 22 countries through creative support programs and festivals.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SFAC plans to establish partnerships with cultural institutions in major cities worldwide—such as Paris, New York, and Tokyo—laying important groundwork for Seoul to leap forward as a global cultural hub.



지난해에는 특히 아시아권 국가와 직접 교류하며 예술을 통해 세계를 잇는 재단의 국제 교류 사업을 재개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작한 공연 〈열차 37호〉는 대학로극장 쿼드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회했다. 그간 왕래가 드물던 중앙아시아권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국제 교류를 위한 새로운 레일을 놓는 시도였다. 또한 지난 12월 막을 내린 제4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중국 베이징중앙미술학원, 일본 도쿄도역사문화재단과 협력해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청년 예술가가 교류하는 현장을 마련했다.

06

아시아를 잇는
국제 교류의 첫 레일
**THE FIRST
RAILROAD
CONNECTING
ASIA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Last year, SFAC resumed it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rt by engaging directly with Asian countries. The performance "Train No. 37," jointly produced by South Korea and Kazakhstan to commemorate the 80th National Liberation Day, premiered at the Daehakro Theater QUAD and toured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with the Korean Theatre of Kazakhstan as one of its venues. Resulting in success, it was an attempt to lay new railroads 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Central Asia, a region where exchanges have been rare. At the 4th Seoul Arts & Tech Festival "Unfold X," which concluded last December, SFAC collaborated with KO-FICE, China's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and Japan's Tokyo Metropolitan Foundation for History and Culture to create a platform for exchanges among young artis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지난해에는 서울 곳곳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야외 명소부터 공원, 광장, 변화가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권 기반의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매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지난해 처음 청계천 물길을 따라 무대를 확장하며 더 많은 시민과 만났다. 이처럼 길을 따라 다양한 공연과 함께 걷는 ‘아트레킹[Artrekking]’은 예술 감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신개념 참여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3일간 거리극부터 서커스·무용·전통 연희·전시를 비롯한 다채로운 41편 프로그램에 시민 16만여 명이 찾아 도심 속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07

아주 예술적인
서울의 일상
THE VERY
ARTISTIC
EVERYDAY LIFE
OF SEOUL

Last year, attempts were made to transform everyday spaces throughout Seoul into stages. The focus was plac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for “living area-based cultural enjoyment,” allowing people to naturally experience art in familiar spaces, such as outdoor attractions, parks, plazas, and main streets. The annual “Seoul Street Arts Festival (SSAF),” which is held at Seoul Plaza, expanded its stage along the Cheonggyecheon Stream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reaching more citizens. Similarly, “Artrekking,” a new participatory program in which participants walk along paths while enjoying various performances, was very well-received as a way to appreciate art and maintain health at the same time. During the three days of the festival, over 160,000 citizens visited to enjoy the pleasure of art in the city center, experiencing 41 different programs such as street theater, circus, dance,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서울의 가을은 수많은 공연과 축제가 연이어 펼쳐지며 말 그대로 예술로 물드는 시기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서울어템페스타’는 가을 시즌에 열리는 공연과 축제를 하나로 엮어 소개하는 공연예술 시즌 브랜드다. 40일간 1만여 명 예술가와 함께한 공연과 축제 116편을 통해 서울 전역에서 56만여 명 시민이 예술과 마주했다. 2회차를 접어드는 올해는 기간을 70일로 확대하고, 국내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작품을 초청하는 국제 교류 플랫폼의 기능을 더할 계획이다. 이는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의 매력을 통해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브랜드 전략이자, 나아가 예술로 세계를 잇는 국제 교류의 교두보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08

세계를 홀린
K-아트의 매력
THE CHARM
OF K-ART THAT
CAPTIVATES
THE WORLD

Autumn in Seoul is literally a season drenched in art, with countless performances and festivals unfolding one after another. Held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Seoul Autumn Festa” is a seasonal brand that interweaves and introduces performing arts shows and festivals held during the autumn season. For over 40 days, 116 performances and festivals featuring around 10,000 artists brought art to over 560,000 citizens throughout Seoul. Now entering its second year, it will extend its duration to 70 days and add a new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facilitating the expansion of domestic arts organizations and inviting outstanding international works. This is a brand strategy to transform the city’s identity through the charm of fine art, which is the backbone of K-culture,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ridgehead for international exchang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rt.



지난해 9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강북·서초에 이은 은평센터가 개관하며 서울의 5개 권역 생활권을 잇는 예술교육 체계가 완성됐다. 이제 서울 시민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서 장르별로 특화된 수준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나 삶의 활력과 마음의 교양을 채울 수 있다. 서울자치구 예술 동호회와 시민 예술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나들이하기 좋은 봄·가을에 개최하는 야외 축제로 개편하며 많은 시민이 찾았다. 또한 재단의 대표 문화 공연 프로그램 ‘서울 스테이지’도 보라매공원·청계천 등 야외 명소로 무대를 확장했다. 또한 거리 곳곳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거리 피아노를 운영하는 ‘피아노 서울’, 가정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노들섬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무대 ‘노들노을스테이지’ 등 재단의 많은 프로그램이 연이어 펼쳐지며 시민의 일상 곁으로 한발 다가갔다.

09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
ART FOR
EVERYONE,
ANYTIME AND
ANYWHERE

Following its counterparts in Yangcheon, Yongsan, Gangbuk, and Seocho, the opening of Seoul Culture & Arts Education Center Eunpyeong last September finally completed Seoul's arts education system, connecting five regions and living areas. Now, Seoul citizens can access high-quality, genre-specific arts education programs near their homes for a life of vitality and inner cultivation. The “Seoul Community Arts Festival,” where Seoul district art clubs and citizen artists gather, was reorganized into an outdoor festival held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seasons—the best times of the year to go on outings—which attracted many citizens. In addition, SFAC's flagship cultural performance program, “SEOUL STAGE,” expanded its venues to outdoor attractions such as Boramae Park and Cheonggyecheon Stream. Moreover, SFAC's many programs unfolded one after another, taking one step closer to citizens' everyday lives. Such programs included “PIANO SEOUL,” which provides street pianos accessible to anyone; “Seoul Circus Festival,” which is enjoyed by the entire family during May, the Month of Family; and “Nodeul Island Sunset Stage,” which features various performances on Nodeul Island.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재단은 광복절을 단순히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예술을 통해 그날의 기억을 특별하게 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 이를 위해 광복 주간을 선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예술적 기억의 장을 선사했다. 특히 2천 개의 태극기로 수놓아 ‘광복섬’으로 변신한 노들섬에는 행사 주간 6만여 명 시민이 찾아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예술로 기억하는 광복의 의미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10

예술로 기리는 역사
HONORING
HISTORY
THROUGH ART

2025 marked the 80th anniversary of South Korea's liberation. SFAC transformed Liberation Day from a mere commemoration of a historical moment into a special occasion to convey the memories of that very day through art. For this, SFAC declared a Liberation Week, presenting a space for artistic remembrance where citizens could directly participate and empathize. Nodeul Island was transformed into a “Liberation Island” adorned with 2,000 Taegeukgi, attracting over 60,000 citizens during the week. The event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creat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liberation in art.



예술로 시민과 도시, 나아가 세계를 잇기 위해 숨가쁘게 달린 2025년, 서울문화재단은 조직 내부를 잇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내 직원 참여 플랫폼 ‘주니어보드’는 조직문화 변화의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재단은 내실을 다지는 한편 미래를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 여러 외부 전문가를 만났다. 특히 지난 11월 출범한 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외에도 도시·기술·정책·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명과 함께 서울의 예술이 나아갈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구심점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이 만든 여러 변화와 성과는 결국 흩어져 있던 선을 이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예술가와 시민,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변화가 앞으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단단한 매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재단은 이런 기반 위에서 세계와 함께 뛰는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한층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2026년 서울은 예술과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Despite spending 2025 running breathlessly to connect citizens and the city, and even the world through art, SFAC did not neglect internal cohesion. The employee participation platform “Junior Board,”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is anticipated to become a starting point for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In addition, SFAC met with several external experts to strengthen its internal stability, while broadening its vision for the future. The Policy Advisory Committee, which was inaugurated last November, plans to establish a focal point for designing the next decade of Seoul's arts, with the participation of 25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culture and arts, urban planning, technology, policy, and media. The various changes and achievements made by SFAC last year were ultimately a process of connecting scattered lines to create a single flow. We hope that such changes connecting artists and citizens, as well as Seoul and the world, will form a tight knot that sustains the future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On this basis, SFAC has also completed preparations to leap forward as a global cultural foundation, running alongside the world. In 2026, Seoul is welcoming a new year of change alongside the arts.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 예술가들의 새해 인사

강훈규 연출가

❶ 저는 연극을 전공한 것이 아닌지라, 서울연극센터 ‘플레이업 아카데미’에서 처음 연극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연극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거기서 배운 거랍니다. ‘플레이업 아카데미’ 영원하라! ❷ 공놀이클럽에 일북도, 상북도

터진 한 해였는데요. 신작 연극 〈클루타임네스 트라〉, 〈무화과〉부터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재공연까지 실 새 없이 달린 것 같습니다. 과분하게도 여러 곳에서 상을 주셨는데요. 특히 서울예술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려 상금이 5백만 원이었다는 사실! ❸ 2월 명동예술극장에서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를 재공연합니다. 5월에는 조만송 작가의 신작 〈미미의 미미한 연애〉, 8월에는 신작 〈광인일기〉, 10월에는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재공연, 11월에는 백하룡 작가의 신작 〈사루비아 꽃이 피었습니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❹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이제는 잘 만든 작업보다 왜 만들었는지가 분명한 작업,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더 중요해졌다고 느낍니다. 기술적 완성도나 트렌드에 맞춘 형

식은 빠르게 소비되지만, 관객이 오래 기억하는 건 대체 불가능한 경험과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이야기를 꼭 내가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솔직한 고백은 언제나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요.

- ❶ 서울문화재단과의 인연
- ❷ 예술가로서 나의 2025년
- ❸ 2026년의 활동 계획
- ❹ 새해, 주목하고 있는 문화예술 키워드

권아란 시각예술가

❶ 2015년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처음 선정되며 서울문화재단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그 덕분에 개인전 《불화하는 말들》을 열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엔 RE:SEARCH 지원사업 덕분에 현재 작업의 이론 배경과 핵심 질문이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술창작지원으로 다시 개인전을 열었네요. 돌아보니 그간의 인연이 10년이나 됐네요. ❷ 크고 작은 개인전 준비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개인전 《오브이오OVO》와 대전시립미술관 현대미술 기획전이 얼마 전 막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연 개인전이었고 작품의 규모가 큰 편이라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새롭게 인사를 나눈 분들이 많아 더욱 반가웠고요. ❸ 2026년 5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매체아카이브 프로그램 전시로, 그동안 주요하게 탐구해온 기술 매체의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관계를 건축적 구조로 확장해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작은 단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❹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성 기술을 껴봅니다. 그동안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놀라움, 수용, 경계가 혼재해 있었다면, 2026년에는 이 현상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며 아직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기술 현상 자체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현 피아니스트

❶ 2024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 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아 9월 13일 피아노 리사이틀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손에 부상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감사한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좋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연주회가 2025년 서울예술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면서 제가 예술가로서 이 사회와 시민에게 어떤 기여와 노력을 해야 할지 방향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❷ 2025년은 사투와 성장의 한 해였어요. 크고 작은 연주가 정말 많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내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껏 섬 없이 달려왔기에 몸이 많이 망가졌고, 내 몸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❸ 2026년 10월 7일 독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편곡과 소나타·즉흥곡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연주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❹ 시가 우리 생활의 점점 더 많은 부분에 개입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과 지성이 아주 중요한데, 시가 과연 어디까지 활동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김이름 시인

❶ 2025년 여름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로 생활하며 정원을 거닐던 날이 올해의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❷ 지난봄, 제게 닥친 천재지변의 불운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극복하는 방식을 통해 문학의 의미를 새롭게 알아온 해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한국 작가를 대표해 싱가포르작가축제와 스톡홀름시축제(Stockholm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에 초청받아 참석한 경험이 가장 특별했네요. ❸ 2025년 연말 민음사에서 새 시집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나갔다』가 출간됐고, 2026년 초에는 신간과 관련한 행사 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단편 소설 창작과 시 창작을 꾸준히 병행할 예정입니다. 연극배우인 지인의 요청으로 희곡 한 편을 착수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❹ ‘소통’과 ‘공감’이 예술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문화+서울]이 그 역할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철 시각예술가

❶ 서울문화재단의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인 ‘우리시각’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업 공고 이후 선정되기까지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지냈고, 선정 이후 진행된 개인 멘토링과 역량 강화 교육은 제 성장에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멘토링을 위해 서울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오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다닐 수 있던 것은, 창작공간에서 느끼는 무언의 창작열과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각’ 사업의 참여 작가로서 서울문화재단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감사드립니다. ❷ 개인적으로 2025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시간과 경험이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응모한 아르브뤼미술상에서 대상을 받게 돼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❸ 2026년에는 오랜 시간 꾸준히 그려온 육·해·공군 개체의 이미지를 활용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디지털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1월 중순에 예정된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에서는, 작품의 크기와 연작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선보이기 어렵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❹ 요즘 들어 ‘가능성’과 ‘한계’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 동시에 스스로 한계를 긋지 않도록 돌아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경자 소설가

❶ 그해 어느 날, 전화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소중하고 망가지기 쉬운 물건을 손에 잡은 기분처럼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사무적인 태도를 익히지 못한 내게 친절하게 대해준 재단의 많은 분들께 아직도 감사의 마음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늘 푸르른 상록수 같은 추억으로. ❷ 여든 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이 나이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나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요모조모 살피고 확인하고 기누고 ‘무리’가 없도록 내 성정을 살폈고요. 소설가라는 도구로서 인생에 대해, 사회에 대해 문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했습니다. 소설가는 늙어도 소설 속의 삶은 늙지 않기에, 균형을 찾는 일이 내 앞에 닥친 숙제이기도 합니다. ❸ 2026년, 병오<丙午>년입니다. ‘병오’는 기운이 뜨거운 해이니 내게 힘을 줄 거라 예감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에 연재한 ‘이경자 서울반세기’를 책으로 묶을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쓰고 버리기를 되풀이하던 장편 소설을 끝내는 것도 목표 중의 하나! ❹ 문화예술의 첫 번째 기능은 사회와 세계,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지든 다양한 ‘경직’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마침내 희망과 평화라는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단은 바로 이런 일이 모든 장르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문화예술의 흐름에, 역지나 역압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길을 트는 일에 최적화돼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직시하고 갈등을 푸는 일에도 재단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백남형진 시각예술가

❶ 개인전 지원을 시작으로 금천예술공장 입주까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서울문화재단은 제게 두루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❷ 작업의 시작이 된 작품으로부터 10년이 흐른 2025년은 그간의 작업을 둘러보고 살펴보며 글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그림이 되지 못한 무언가를 갈망하며, 이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시간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❸ 2026년에는 호두나무 시리즈를 책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뜬구름처럼 느껴지지만, 신작을 통해 무언가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❹ 트렌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세계를 묵묵하게 견고 있는 동료와 선배 작가들을 보며, 이러한 꾸준함이야말로 예술과 삶을 잇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장혜림 무용가

❶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서 진행한 워크숍의 순간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춤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았고, 큰 기대 없이 참여했

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면에 잠재된 열정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춤을 통해 자신을 가감 없이 발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시간은 뜨거웠고, 찬란했으며, 아름다웠죠. 열정과 헌신으로 기획한 직원분들께 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❷ 며칠 전 지난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이 긴장돼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지나고보니, 내가 걱정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흘러온 순간이 많았다는 것도 보이더군요. 최근 <제, 타오르는 삶>으로 유럽 5개국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기립박수로 화답하던 관객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자신의 감상을 진실하게 나눠주던 순간들이 유독 소중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는 것, 무대에 선다는 일이 나와 관객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❸ 지난 11월, 프랑스에서 플라멩코 아티스트들과 특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춤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게 됐고, 그때 나는 춤과 음악, 에너지는 지금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출발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호흡할지 기대하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❹ '존재'에 관한 질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서 있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과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급변하는 생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술과 예술가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여러 고민은 나의 오랜 화두이자 동시에 지금 이 사회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느낍니다.

이시평 시각예술가

❶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2년 차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과 전시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매년 한 단계씩 성장해왔고요. 레지던시의 동료 작가님으로부터 “우리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성장한 작가인 만큼 언젠가는 서울이라는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작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세상을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기억이 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해준 크고 작은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저 역시 개인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능을 환원하는 작가로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❷ 2025년은 제게 정말 뜻깊은 해였습니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어 공예비엔날레에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까지 얻어 더없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좋은 작가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사람으로서 깊이 소통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진실한 관계를 쌓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한 해였습니다. ❸ 2026년에는 기존의 대표작을 더 확장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하나의 큰 주제로 엮어내는 세계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특정 소재나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을 이어가며 '이시평'이라는 작가가 던질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❹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예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응용하는 실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료의 고유한 물성을 다루는 공예적인 작업 역시 꾸준히 재조명되고 확산되리라 생각해요. 익숙해서 잊혀지곤 했던 보편적 소재와 가치를 현대적으로 변용하면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ARTS SOLO ACADEMY

예술가의 진심

시인 신해욱, 연결의 감각

예술인 아카이브

라움콘

솔솔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재단 주니어보드에게 듣는 이야기

인사이드

제3회 서울희곡상 수상자 김유경

트렌드

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지금

2025 K-BOOK 페스티벌

시인 신해옥,
연결의 감각



우선, 제33회 대산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에는 신동문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요. 이렇게 축하 인사를 직접 전하게 되어 기뻐요.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²⁰²⁴(봄날의 책)가 올해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먼저 청해 듣고 싶네요.

2025년에 상복이 있나 봅니다. 책을 내고 1년쯤 지나면 ‘책을 냈다는 기분’이 슬슬 사라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상을 받은 덕에 그 ‘기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기쁘지만 무겁기도 해요. 상이라는 게 그저 응원이라기보다는 공적인 호명이기도 한 터라서요.

수상 소식과 더불어, 근황도 궁금합니다. 최근 SF 앤솔리지 시집인 『뭐 사랑도 있겠고, 인간 고유의 특성』²⁰²⁵(허블)과 두 번째 소설집인 『미개봉박두』²⁰²⁵(픽션들)의 출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닌데, 새 책도 나온 터라 지금처럼 인터뷰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또 송년회 시즌이기도 해서 문학 이야기를 오랜만에 정말 많이 나누고 있어요. 『미개봉박두』를 낸 출판사 ‘픽션들’이 11월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하면서, 덕분에 저도 그 자리에 잠시 끼어 있었어요. 문학 출판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 책과 텍스트와 이미지와 디자인 등등에 대해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말씀해주신 소설집과 앤솔리지 시집 출간이 겹치게 됐어요. 사실 신해욱 시인이 SF 시집에 참여하셨다는 소식이 제게는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출간 시기가 겹쳤어요. 이 시집의 기획 청탁을 받은 것은 좀 더 오래된 일인데요. 사실 출판사로부터 제안받았을 당시에는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작업인지 잠시 고민했어요. SF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써본 적은 없고, 또 소재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SF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상상의 동력으로 삼아 지금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그려 보이는 장르잖아요. 가만히 제 독서 경험을 돌아보니, 제게 방점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SF의 궁극에는 신비주의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곳과는 다른 중력, 다른 공기의 밀도, 다른 감각 체계, 다른 시간의 흐름을 언어적으로 상상하고 텍스트의 형태로 살려내고자 하는 실험들이 시로서의 SF라면, 제 작업 또한 얼마쯤은 맞닿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른 세계’를 향한 시의 갈망이 SF와 일종의 교집합을 이룬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면서도 동의가 되네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평소 시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작업을 오래 하는 편이라서요. 일단 쓰고 싶은 구절들을 꾸준히 모아둡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구절이 어떤 상황과, 혹은 어떤 구절이 또 다른 어떤 구절과 잘 달라붙는 때가 있어요. 그들 사이에 일종의 화학작용이랄까요. 그런 게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지점을 가능한 놓치지 않고 붙잡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편이죠.

첫 시집 『간결한 배치』(민음사)의 출간이 2005년이고, 그 이후로 4~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집을 출간해왔어요. 『생물성』²⁰⁰⁹(문학과지성사), 『syzygy』²⁰¹⁴(문학과지성사), 『무족영원』²⁰¹⁹(문학과지성사)를 거쳐 최근 시집인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까지. 이번 시집의 작업 과정, 또 출간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을 독자분들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확실히 협업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표지 그림이 한진 작가의 작품 〈Tone Roads Op. 1〉인데, 전시회에서 그림을 본 게 2016년쯤이었어요. 막연히 이 그림과 함께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봄날의 시집’ 시리즈는 표지 그림을 시인 자신이 고르게 되어 있으니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작가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기뻛고요. 실물을 받아보고는 더 흐뭇했어요. 연필 선과 흑연의 느낌이 물씬 살아나서 좋았고, 그림 원본은 만질 수 없지만 이 표지는 만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만지고 나면 손에 흑연이 묻어나고 그 손가락을 종이에 대면 지문이 남을 것 같은 느낌도 좋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집 제목을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로 정하게 된 것이 이 그림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제목을 정한 후 표지가 확정됐지만, 제목을 정할 때부터 이 그림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질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좀 거칠고, 또 스산한 기운이 시집과 잘 어울리고요. 그에 더해 이번에는 그간 신해욱 시인의 시집에서 볼 수 없던 시집 해설도 수록돼 있는데요. 협업의 느낌이 강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시집에서는 해설을 따로 붙이지 않았는데요. 가이드 없이 누구나 첫 독자로서 시집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흰 눈을 직접 밟는 느낌으로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저는 제 시가 늘 쉽다고 생각했거든

요. ‘숨기지 않고 다 쓰는데? 복잡한 맥락 없고 쓰인 그대로 표
면만 읽으면 되는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표면에 전부 드러내려고 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인정하
게 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산문 어법은 아니니까 낯설 것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읽기의 방법을 누군가가 먼
저 제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예전엔 시를 쓰고 시집
을 묶는 나에게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한 권의 시집이 만들어
지고 그것이 읽히는 자리, 시를 읽고 싶어 하는 여러 층위의 마
음들을 두루 살피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가 읽히는 자리를 두루 살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 신해
옥 시인이 그간 그려온 ‘신해옥’이라는 궤적이 머릿속에 그려지
는 것도 같아요. 앞선 질문에서 이번 시집만의 특수성을 여쭙봤
다면, 이번에는 시를 써온 오랜 시간을 함께 돌이켜보고 싶어요.
그간의 흐름이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시를 쓰는 내내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공통의 질문 혹은 감각 같은 것이 있다
면 더불어 여쭙보고 싶습니다.

변화란 것은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시집 단위별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집을 묶을 때 절반은 편집자의 자
리에서 시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재구성의 감각이 반영되며
시집이 나올 때마다 변화했다는 느낌이 생성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시집이 나오고 나서가 아니
라, 오히려 시집을 내기 얼마 전쯤에 어떠한 변화 같은 것이 오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중인 지점 혹은 상태가 한 시집 안
에 섞여 있는 거죠.

한편, 시를 쓰는 내내 계속 이어져온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알맞음에 대한 갈망이랄까 환상이랄
까, 그런 게 있었어요. 말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요. 내가
딱 알맞은 만큼만 나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 대해 생
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요. 건강할 때
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숨 쉴 때 공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
럼요. 그 갈망이 시를 쓰는 동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반대더라고요. 비로소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이 불편한
거예요. 시를 쓸 때만큼은요. 내게 익숙한 감각, 어휘나 어법,
리듬에 들어서면 이게 아닌데 싶어요. 잘 맞는 옷만 아이러니
하게도 내 옷이 아닌 느낌. 그 불편함과 부대낌에서 벗어나려
고 하니까 결국은 또 다른 알맞음을 찾아 헤매는 건가. 그렇다
면 끝없이 유예되는 알맞음을 여전히 갈망하는 것일지도 모르

겠고요. 아니면 불편함 속에서만 언어적 쾌락을 느끼는 것일
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수상 소감에서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탐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끝으로 갈수록 제가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을 깨닫고 세
계에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저
또한 신해옥 시인의 시집을 읽으며 바로 그런 연결을 감각하게
되는데요. 탐닉의 대상이 ‘나’이든, 문자이든, 언어이든 그 집요
한 펜끝을 함께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우리’라고 하는 낯설고 희
미한 곳에 도착해 있다는 느낌ियो.

한 편의 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표제작인 「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가 네 편인데 그중 하나는 ‘다랑쉬’라는 지명에 끌리면
서 시작되었어요. 제주에 갔다가 ‘다랑쉬’라는 지명을 보는 순
간 무조건 저 단어가 나오는 시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죠. 말 자
체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라 마치 손에 꼭 쥐고 싶은
작은 돌 같지 않나요. 그러나 ‘다랑쉬굴’은 제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참혹한 현장이기도 하죠. 다랑쉬라는 말에 매혹되는
순간 비극적 역사의 무게 또한 외면할 수는 없어져요. 누군가
의 고통에 연루된 지명을 내가 유희적으로 탐닉하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들고요. 역사적 무게를 삭제하지 않고, 그러나 그 무
게에 짓눌리지 않고, 다랑쉬다운 다랑쉬로, 새로운 장소를 생
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시의 ‘우리’라는 화
자는 단순한 ‘우리’여서도 안 되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어서
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목소리여야만 하죠.

언어 자체가 상속받은 것이기에, ‘다랑쉬굴’이라는 단어를 향한
매혹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죄의식이 따라붙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맞아요. 언어는 상속받은 것이고, 그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올 때
온갖 찌꺼기들과 함께 오는 셈이죠. 결국은 그런 것을 모두 끌
어안고 어딘가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그 앞에서 한
번은 더 주저하며 서 있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른 글을 쓸 때보다 시를 쓸 때는 그런 것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
게 되고요.

말씀하신 ‘우리’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집들의
‘우리’가 무언가를 도모하고, 어딘가를 향해가고 모여 있는 모
습이었다면, 최근의 시집에서 이들은 개별 개체들이 모여 있는
상태라기보다 더 거대한 의미의 ‘우리’처럼 보였어요. ‘지금’ 혹은

은 ‘여기’라는 감각을 교란하는 역사 그 자체로서의
‘우리’라는 생각도요. 아주 멀리서 ‘나’에게로 도착
하는 목소리. 내 것이 아닌 목소리를 내 목소리에 겹
쳐소리를 내는 바람에 이 화자(들)는 언제나 불협화
음과 같은 중첩된 목소리로 발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시는 언어적 퍼포먼스, 혹은 목소리로서의 퍼
포먼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데요. 첫 시집을 낼 즈음엔 시 안에 0.5명이 있었
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는
데, 그러면서도 뭔가 모자라거나 조금씩 남아돌
아서, 1.5명의 목소리, 2.5명의 목소리, 이런 느
낌이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났
을 거예요. 단수도 복수도 아니라서 개체인지 군집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 형상은 흐릿해지고 운동성과 동작성만 두드러지
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번 시집에는 ‘죽음’이 ‘삶’과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 시집의 시공간이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인류의 기원 혹은
“기원 전”(「자연의 가장자리와 자연사」)인 것 같다는 느낌도 거
기서 비롯하는 듯해요. 이번 시집을 작업하면서 신화나 설화, 혹은
그것이 되다 만 여러 판본의 오래된 이야기들로부터 어떤 영
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바리데기 신화, 구약의 창세 신화, 『장자』에 나오는 혼돈 우화
등에 매료되고 시 안에 모티프로 활용하기도 했죠. 저는 좀 진
지한 사람이라서 이 신화들을 옛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소비하
고 싶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몰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몰
입을 방해하는 것이 신화 속의 ‘아버지’예요. ‘하느님 아버지’
가 되는 순간 거리감과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바리데기의 여
정에 깊이 끌리면서도 그 여정의 계기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효심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 신화들이
유구한 세월을 거쳐 현재에까지 전해진 건 가부장제 안에서
보편적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바로 그 호소력이 오히
려 저의 몰입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기원의 이야기를 갖고 싶어요. 믿음의 결핍 상태를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갈망이 이번 시집에 들어 있을 거예요.

앞선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꼭 한번 여쭙보고 싶은 질문이 남
았어요. 신해옥 시인에게 시와 소설, 산문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설의 주인공이 인물, 에세이의 주인공이 생각이나 장면이라



↑ 신해옥 시인의 책.
주황색 표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화에 대한
소개와 감상을 모은 소설
『미개봉박두』

면, 시의 주인공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바꿔 말
하면, 단어든 구절이든 문장이든 말에 먼저 꽂혔
을 때 시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표현하려는 생각
이나 그리고 싶은 장면이 앞서면 산문으로 접근
하고요.

최근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되었어요. 『미개봉박
두』에 수록된 다섯 편의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소
개된 적 없거나 영영 소개될 일 없는 가상의 이야
기”라고 소개되는데요. 신해옥 시인은 그렇게 세
상에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완성된 서사라기보다는 떠도는 목소리에 가까
운… 그게 문학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은 어떻게 기획
하게 된 걸까요?

『미개봉박두』는 2015년 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격월간으
로 나온 독립 문예지 『더 멀리』의 연재 꼭지에서 시작되었어
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꼭지였는데, 한두 번 쓰다보니 재미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방향을 틀었죠. 내가 보고 싶은
가상의 영화를 상상한 다음, 그 영화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소
개하는 콘셉트로요.

영화에 대해서만 가상의 작품을 상상해본 건 아니고요, 저는
책을 읽거나 전시회에 다녀오고 나서도 버릇처럼 내가 읽고
본 것과 다른 버전을 그려보곤 해요. ‘있게 된 것’이, ‘있었을 수
도 있었을 것’을 일깨우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의 결
핍을 깨닫게 만든다고 할까요. 작품의 유령들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 시를 쓸 때도 그렇죠. 하나의 시를 쓰고나면,
그 시가 되지 못한 잠재적 시들이 주변에 우글우글 함께 깨어
나는 느낌이에요. 그런 작품들의 결핍에 또한 마음이 가죠.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형태화해본 것이 이번 책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페이
크 에세이’라는 명명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페이크 다
큐멘터리’처럼.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준비하던 책도 나온 터라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
을 때야 저는 뭔가 뜻밖의 것과 접속되더라고요. 그게 뭘까,
더듬이를 잘 세우고 새해를 맞으면 좋겠어요. 조금 느린 속도로
읽고 싶었던 여러 책을 찬찬히 읽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해요.

라움콘

→ 〈울림만 있다면〉, 2024, 네발 지팡이, 지팡이, 장식용 종, 가축용 종, 카우벨, 케이블타이, 철사, 가변 크기

시각예술
@laumkon
www.laumkon.com
2023-2024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저희는 2018년 10월 7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장애를 갖게 된 Q레이터(이기언)와 송지은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듀오 '라움콘laumkon'입니다. 라움콘은 Q레이터가 베르니케 실어증 Wernicke's aphasia(감각성 실어증) 상태에서 '양치질'을 말하고 자 할 때 사용한 착어이자 비언어예요. 현재는 마비된 신체 기능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예전과 다른 몸으로 경험하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해 다양한 창작물을 생산, 변화된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신체 오른편이 마비된 Q레이터님과 저는 2년간량 재활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했어요. 걷기, 말하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적인 움직임을 다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양쪽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한쪽만 사용하게 되면서 몸의 중심축이 연약해지고 귀로 들리는 언어가 웅웅거리듯 뭉쳐서 들리기도 하고 다른 속도로 걷게 되면서 우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 드로잉하고 몸을 관찰하고, 새롭게 감각하는 일상을 쌓아가며 활동하게 된 것 같아요. (송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예술로 삶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느껴요.

〈울림만 있다면〉²⁰²³⁻²⁴은 베르니케 실어증으로 인해 들리는 말소리가 뭉치고 뒤섞여 이해할 수 없게 되는 Q레이터의 경험에서 출발했어요. 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말이 웅얼거림처럼

들린다고 했죠. 저희는 그 낯선 말소리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귀로 들은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내 반복해보곤 했어요. 그러다보면 말소리는 점점 형태를 잃고 추상적인 덩어리로 변하면서, 서로의 머릿속에서 그 소리의 모양을 그려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뭉쳐진 말은 결국 하나의 '울림'으로 남는다고 느껴요. 이 경험을 더 깊이 탐색하고자 작곡가와 워크숍을 열어, 귀에 들리는 말소리를 음악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울림의 변화를 스코어 드로잉으로 기록했어요. 동시에 불안정한 보행을 보조하는 지팡이에서 모티프를 얻어 거기에 가축용 종, 곰 퇴치용 벨, 의류 장식용 종, 핑거벨, 카우벨, 심벌 시즐러 체인, 탬버린, 스피커 지지대, 테이블 종, 마이크, 철사 수세미, 빨래걸이 등을 결합해 다양한 오브제 악기도 제작했죠. 퍼포먼스에서는 Q레이터의 지휘에 따라 전시실 곳곳에서 퍼포머의 움직임과 함께 〈울림만 있다면〉의 오브제 악기가 다양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악기를 연주한다기보다, 각각의 작품이 가진 고유한 울림이 공간 전체와 공명하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20여 분간 진행되다가 Q레이터의 손동작에 맞춰 소리가 하나둘씩 멈추고 고요한 상황이 되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 외에도 도시 공간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 웨어러블 오브제를 제작한 〈다시 걷는 노-하우〉²⁰¹⁹⁻²⁵, 사물 접근성과 심미적 만족감을 고려해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제를 제작하는 〈한 손〉²⁰²⁰⁻, 관계 사이, 다른 속도의 언어가 충돌하며 실패와 단절이 발생하며 생겨나는 경험을 사운드 인터랙션 설치로 작업한 〈□□□ □□□□ □□ □□□□〉²⁰²³⁻²⁵ 등이 있습니다.

저흰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걷기, 옷 입기, 대화 나누기, 횡단보도 건너기, 그릇에 담긴 국 떠먹기 같은 일상의 순간에서 말이죠.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현재엔 새로운 경험이 되기에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은 경험을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상상하고 관찰하는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다름이 공동의 작업 안에서 신선한 자극이 돼 상상을 확장하는 요소가 돼주기도 해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과 〈킬 빌〉. 저는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살짝 비트는 감독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Q레이터)

지금은 2020년부터 진행해온 〈한 손〉의 네 번째 오브제를 고민 중이고, 오브제와 퍼포먼스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솔

음악
@solsol.official
2024-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워크숍
‘내가 그리는 정가’

솔솔은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듀오입니다. 노래하는 조윤영과 작곡하는 김여진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2021년 3월 결성 이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서울국제도서전, 서울공예박물관 등 다양

한 현장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서울우리소리박물관과 협업한 곡 ‘나무로다’는 초등학교 2학년 인문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중·고등학교 동기인데,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자연스럽게 함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 솔솔이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동요를 좋아하며 자랐고, 특히 전래동요에 우리나라의 차분한 정서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 동요를 재해석해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동요를 단지 ‘어린이만의 음악’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첫 앨범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앨범을 발매한 그해 가을에는 강릉에서 ‘청춘마이크’ 활동

을 하며 관객을 직접 만났고, 그사이 솔솔이라는 팀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이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에 가깝다고 느껴요. 얼마 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진행한 ‘내가 그리는 정가’ 워크숍을 마친 뒤, 한 초등학교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워크숍에서는 노래를 배우는 시간뿐 아니라, 노래와 그림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음악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마지막 날이 많이 아쉬웠다고 적어주었어요. 손수 접은 색종이에 담긴 그 짧은 편지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솔솔로 활동하면서는 노래를 들려준 직후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 건네주거나, 외국인 관객이 느낀 점을 글로 남겨 전해주는 등 감상과 피드백이 아주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래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닿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더 좋은 감각, 더 재미있는 감각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저 역시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싶어집니다. (조윤영)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에서 나다운 삶의 방식을 꾸려 나갈 때 예술가가 된다고 느낍니다. 제 손을 거치고 제 고집을 담아 선택한 것들이나 다음을 만들고, 그런 찰나가 일상 가운데 많아질수록 예술과 가까이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사하면서 방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놓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무대를 꾸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창조적인 활동은 삶 곳곳에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김여진)

2023년에 발표한 정규 앨범 『노래와 그림책』이 우리 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을 계기로 그림책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노래와 그림책’은 한 권의 그림책을 한 곡의 노래로 옮기는 작업으로, 그림책을 읽듯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정규 앨범에는 13권의 그림책을 음악으로 수록했습니다. 동요로 팀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요와 그림책이 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는 어른인 적이 없지만, 어른은 모두 어린이

를 지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두 장르 모두 특정 연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림책이 저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책의 주제도 소재도 다양하고, 그림 한 장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보니 그림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보면 그만의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각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음악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작품은 프랑스 그림책 『치마 입은 소년』입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를 전하고, 어른들에게는 무심코 따르고 있던 기준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림책도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 2026년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영)

저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워크숍에서 만난 친구 작품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높은음, 중간음, 낮은음으로 칸을 나누는 종이에 다양한 음형 스티커를 붙여 나만의 ‘정가’ 선율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낮은음만 나오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굴러가는 ‘동그란 구름’을 쫓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도 그림도 노래도 신선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줘서 깜짝 놀랐어요. (김여진)

앞으로는 해외 그림책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국내 그림책을 넘어,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 정서를 솔솔만의 음악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세계의 이야기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눈 내리는 삼일포』를 음악으로 만든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발매를 기념하며 이수지 작가님과 김연수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이 음악이 되고, 음악이 다시 이야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노래이니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솔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동안 쌓인 경험과 인연을 다시 좋은 음악과 작품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야기와 사람들과 호흡하며, 오래 마음에 남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주니어보드에게 듣는 이야기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넘어서 조직 전체를 고민하는 청년 직원들이 있다. 흔히 '중역'으로 불리는 무거운 직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서 조직의 건강을 고민하는 이들이다. 2025년 하반기 '주니어보드'로 불린 여덟 사람과 사업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니어보드”라는 큰 그림은 경영기획팀에서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실무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만큼 결과나 성과보다는 직원들이 주니어보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자 했어요. 회사마다 주니어보드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서울문화재단 주니어보드는 실무자 또는 근로자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예술행정기관 종사자·경영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단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부서별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경영을 논의하는 정기 간부회의를 참관하거나, 타 기관·기업의 사례를 탐방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달리해보며 새로운 시선에서 조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이인준)

Q. 입사이래 가장 인상 깊거나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이인준 힘든 일은 잊어버리는 편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적응하랴, 사업 추진하랴 정신없던 신입 시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하다보면 스스로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갖고 있는 동료, 선배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가장 인상 깊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남궁태운 저는 6년 차이지만 거의 일 년에 한 번씩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매해 새로운 업무를 하니 늘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늘 적응하며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개중에서도 너무나 어려웠던 순간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 걸 보니 아마 망각했거나, 팀원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위기를 순탄하게 넘겨온 거 같네요.

유민곤 인상 깊은 순간은, 재단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한 동료들의 출근길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을 때예요.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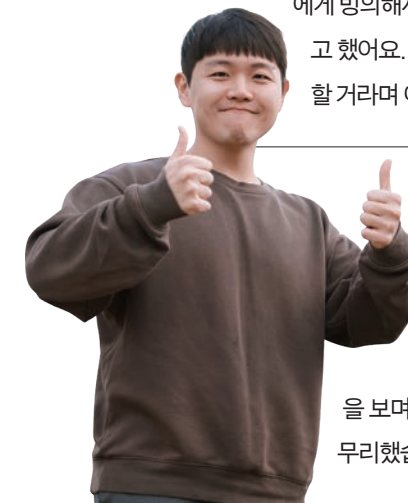
2020년 7월 입사해 문래예술공장과 지역문화팀을 거쳐 현재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웹진 [비유]를 맡고 있다.



들이 보여준 밝고 솔직한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부터 업무 고민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한다는 감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줬죠. 그 모습을 깨우칠수록 외부에 발신하면 시민에게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한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어요.

이세옥 지금은 일몰된 사운드아트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 아티스트에게 들은 피드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운드 온’처럼 예술계의 특정 영역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운영되는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거든요. 이후로 소규모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만 3년을 꼭 채운 문화향유팀 주임. 거리피아노 사업 ‘피아노 서울’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예 이전에 없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 카페를 담당했을 때인데요.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아서 맛도 잘 모르고, 수익이 발생하는 식음 영업장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없던 터라 막막했습니다. 주말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러 따로 학원도 다니고, (결국 뒀습니다!) 카페 사장님에게 빙의해서 메뉴도 개발하는 등 최대한 잘 운영해보려고 했어요. 우스개로 제2의 인생은 카페 사장으로서 시작할 거라며 얘기하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허진우 2025년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피아노 서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행사 장소인 청계천이 폭우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다가 마지막 날에서야 거짓말처럼 해가 뜨고 물이 빠지는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쨌든 행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Q. 주니어보드에 함께하게 된 계기

박경섭 입사 5년 차에 ‘서울문화재단, 뭘까?’라는 본질적 질문에 끌려버렸습니다. 실은 ‘인생, 뭘까?’라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내린 결정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농입니다.

유민곤 재단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기관이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는지 궁금했고, 저연차 직원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남궁태운 거창한 동기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재단의 현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세욱 실무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업무 중심으로, 사업 기획 운영의 구체적인 면면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예 지난 2월 말 서울무용센터로 부서를 이동하고 나니 한 장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업무나 회사에 대해 좀 인/아웃을 할 수 있는 시야와 사고의 밸런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주니어보드 공지가 올라왔을 때 재단과 조직,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와 사고의 확장,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의견 제안을 통한 회사와의 상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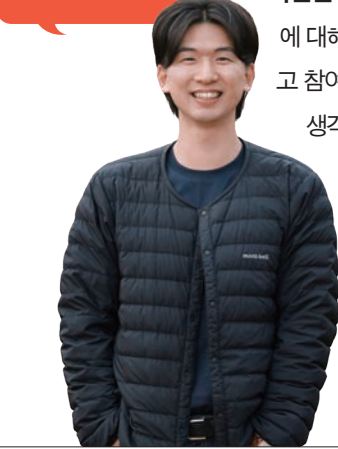
여은미 여러 부서의 구성원이 한자리에서 논의하 다보면 각자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조직의 고민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한 구성원이 그리는 재단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황승현 저는 사업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다보니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주니어보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주니어보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

남궁태운 처음 간부회의를 참관한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경영진과 간부들이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가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듣

경영기획팀에서 조직 관리와 주니어보드 업무를 맡고 있다.



고 보며 직관적으로 우리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재단에서의 업무 경험 등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참여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일하고 있구나’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하다보면 여러 생각과 감정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스트레스나 불안이 아닌, 발화를 통한 동료 간 공감대 및 연대 형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경섭 저 역시 11월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이 기억에 남아요. 외위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에 관해 말할 일이 드물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들 일에 관한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늘 품고 있다는 것도요.

유민곤 ‘우리는 왜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하는가?’라는 주제를 발굴한 순간이요. 이 질문을 통해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갈 근본적인 동기를 찾으려고 했죠. 동기가 분명해지면 일하는 과정이 더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여은미 재단의 현재 상태를 정의하고 조직 특성을 탐색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주니어보드는 내부소통팀과 외부소통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저는 외부소통팀에서 재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가 실제로 내재해 있다는 전제하에 재단이 외부에 어떻게 발신되고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주로 ‘재단 구성원의 공통된 지향점은 무엇인가’, ‘외부에서 보는 우리 재단은 어떤 곳인가’, ‘브랜딩은 제대로 외부에 송출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에는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사업이 혼재해 있고, 각자가 기억하는 재단의 모습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지예 외부 포럼에 참석한 뒤 회의에 참여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주니어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팀에서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2년 차.



고민이 많았는데, 이때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방향과 틀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Q.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이인준 주니어보드 활동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성과 다양성 자체가 재단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문화재단은 태생적 구조로 인해 시·시의회·유관기관·기업·시민·(수많은 장르의) 예술가 등 대외적으로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재단 내부 구성원 또한 각기 다른 전공과 분야에서 모이다보니 개성과 관점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재단 직원 모두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남궁태운 재단의 조직 특성은 ‘균형 맞추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재단의 모든 활동이 공공성 위에 구축되잖아요. 그 공공성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조직의 미션과 비전으로 향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죠. 하지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섬세한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 감수가 쉬운 구조도 아니죠. 그렇지만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빠르고 꾸준하게 조율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박경섭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1년간 여러 요구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장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다양성과 의외성을 모두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양한 레이어가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민곤 주니어보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재단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주니어 직원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직무를 넘어 조직 전체의 방향과 발전을 생각하는 동료들을 보며, ‘나는 그동안 너무 눈앞의 일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많다는 것 자

서울무용센터에서 대관부터 공간 운영, 대내외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6년 차.



체가, 우리 재단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세욱 그 자체로 다원적이고 혼성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 공적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곳곳에서 발현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관, 예술 생태계 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동시에 느리게 반영할 어떤 부분을 종종 마주하기도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지예 재단은 출연기관이기에 사업도, 조직도 보수적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렇기에 재단의 조직 특성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고무줄의 그 고무도 맞고요. 고무하디의 그 고무도 맞습니다. 다만 고무라는 물질의 역할에서 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조직 또한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매우 중요시 해야겠지요.

Q. 우리 조직의 청년 세대 혹은 시니어, 동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인준 제가 재단에 입사한 결정적 이유가 ‘사람’이었습니다. 임시직(행정스태프)으로 일하며 서울문화재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고, 각자가 가진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힘들 때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것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 지위 막론하고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민곤 주니어보드 활동을 하며 느낀 건, 세대나 직급을 떠나 재단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재단이 우리의 시도를 믿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분위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청년 세대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주니어보드 활동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신뢰와 응원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지예 제가 입사할 당시 역지사지라는 말로 제 경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 일을 겪게 될 수 있

고, 내가 겪은 일을 다른 누군가도 겪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무슨 일이든, 대상이 누구든, 단정 짓지 말고 열린 생각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하고 싶거나, 진척 없이 막혀 있다면 주변의 동료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심을 추천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언제나 대화영입니다!

여은미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다양한 세대와 여러 사업이 공존하는 우리 재단에 서 특히나 중요한 자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선으로 가능해지면, 조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더 나은 대안도 도출될 수 있을 테니까요.



융합예술팀에서 국내 융합예술 분야 10개 기관이 함께하는 '융합예술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언폴드엑스^{UnfoldX}' 전시 부대행사를 맡고 있다.

Q. 2026년 주니어보드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인준 처음 주니어보드 참여 직원을 모집할 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가끔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잃어버리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니어보드가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아닌, 다양한 관점의 열린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현업에서의 새로운 활로와 여유 또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섭 '서울문화재단, 뭘까?'라는 질문은, '인생, 뭘까?'라는 질문 못지않게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정말.(웃음)

유민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큰 성장으로 남을 거예요.

이지예 주니어보드를 통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록, 설령 이행되지 못한다 해도 제안하는 시도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주니어보드는 누구일지 기대하겠습니다!

회사 생활 6년 차에 접어들며 미래전략팀 대리. 서울문화예술포럼과 서울국제예술포럼을 담당했다.

홍보마케팅팀에서 재단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과 시민기자단 '스팍메이트'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은미 자연차 팀원들은 주로 부서 업무에 매몰돼 큰 그림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단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우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아요.

Q. 5~10년 뒤 서울문화재단을 상상한다면

박경섭 2020년의 서울문화재단보다 2030년의 서울문화재단이 가까이 느껴지는 시기가 됐네요. 기관으로도, 일터로도, 예술계 한가운데에 자리한 현장으로도 언제나 주목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준 고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때로는 동료들끼리 의견이 달라 마찰을 빚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진하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숙명과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이 여전히 공존하면서도,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진우 위트와 여유를 간직한 조직!

남궁태운 예술 현장과 재단 식구들이 좀 더 밀접하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박경섭 올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울문화재단과 만났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서울문화재단 많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곤 재단의 변화는 누군가 한 명의 거대한 시도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내는 아이디어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주니어보드의 작은 시도가 여러분께 긍정적인 변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곡, 언제나 새로운 상상력으로 제3회 서울희곡상 수상자 김유경

제3회 서울희곡상 영예의 주인공이 밝혀졌다. '인국인데 두 명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를 쓴 김유경 작가다. 2024년 경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고는 같은 해 <봄 작가, 겨울 무대>에서 낭독공연을 올린 뒤 2025년 뮤지컬 칸타타 형식의 <두 번째로 간 훈련소>의 극작과 가사를 맡은 그는, 수상 소식 이후 '드디어 연극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등단 후 집필을 왕성히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작업을 하며 정식 공연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상작은 특히 메타 구조로 독자에게 아이로니컬한 흥미를 자극하는 희곡이다. 제목은 '인국'을 지시하지만, 추후 공연으로 만들어져 실제 관객이 마주할 무대는 1인국이 아닐 것이다. 작가와 그가 만든 인물이 '나란히' 등장해 치열한 대화를 펼쳐 나가는 희곡이기 때문이다. "메타극이 자칫 과장되거나 인위적으로 보일 위험을 경계"하기 위하여 메타극을 열심히 공부했다던 그는, 이 형식적 틀거지를 작가로서의 자아상을 과시하기 위한 기교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극 중의 작가와 자신(김유경)을 분리해 설명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극 중의 나'(작가 역)와 '극 중의 내가 만든 나'(인물 역) 사이의 대화에서 김유경(실제 작가)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나를 찾아보라는 과대한 작가적 명령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수상 소식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2월 8일, 서울연극센터에서 김유경 작가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작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 혹은 그가 쌓아온 극작의 시간을 그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수상작 '1인국인데 두 명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의 시놉시스가 흥미롭습니다. 작가와 그 작가가 만든 인물 사이의 대화라는 모티프를 보며 루이지 피란델로 Luigi Pirandello가 떠올랐는데요. 피란델로에게 영향받았죠. 작가가 자기가 쓴 인물과 대화한다는 메타적 설정 자체가 이 희곡의 모티프였습니다. 실제로 완성하지 못한 희곡이 있는데, 제가 원고를 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이 그 글 안에서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물의 고유한 리듬을 찾아야 글을 써나갈 수 있는데요. 인물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피란델로를 오마주한 것이지만, 극 중 인물의 발화나 결론 등을 다르게 펼쳐나갑니다.

극 중 '작가'라는 인물의 설정이 궁금합니다. 왜 런던에 사는, 데 뷔에 실패한 극작가인가요? 이 극의 시공간적 배경은 2010~2015년 무렵 영국 런던인데요. 이곳의 격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테이트 모던이 세계적 지배 구조를 만들고 갤러리 산업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며, 글로벌 스타가 되는 미술가들이 거론됩니다. 반면, 로열 코트 극장은 세계적인 극장이라 해도 스타 작가 몇 명만 왕좌를 차지하고, 신인 작가는 사실상 계단조차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가장 초라한 곳에 머물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당시 런던은 미술계뿐 아니라 공연·문학까지 여러 예술 실험과 자본이 집중된 곳이었고, 이 '예술 중심지'에서 극작가의 생태계는 어떠한 불균형 속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대비 시키기에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특히 영국의 포스트드라마를 쓰고 실패한 작가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과 느끼는 바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포스트드라마 희곡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작가'와 그가 만든 '인물' 사이의 대화는 설정 자체로 아이러니한 것이긴 합니다.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로만 읽을 수 없음을 강력히 지시할 듯한데요. 메타극은 자주 다뤄지는 설정이기 때문에 현대 공연을 관람한 관객이라면 사실상 누구나 자주 마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처음부터 전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대해 이 희곡으로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질문을 계속 해나가려 했습니다. 극 중에서 인물은 작가에게 '그 대사는 내 거야', '그 감정은 내 거야'라고 선언해버리는데요. 둘의 대화가 곧 '작품이란 작가의 것인가, 인물의 것인가' 하는



최근의 시의성 강한 질문 자체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희곡은 사실상 어느 실패한 작가의 무대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읽힐지는, 결국 무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경로가 흥미롭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후 패션업계와 광고업계에 오랫동안 계셨네요.

미술을 전공했지만, 텍스트를 오래 사용해왔더라고요. 광고사에서 카피를 쓰는 일을 오래 했는데요. 소비자의 감정을 움

직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글을 써온 것이죠. 또한 미술을 해오면서 창작의 궤를 오래 감각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창작의 시간이 외롭게 느껴진대거나,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답답해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람을 탐색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싶어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이 작업이 저는 즐겁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흥 강태기 배우의 〈에쿠우스〉를 봤어요.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극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느낀 낯섦이 오래 지속됐어요. 특히 무대는 제게 '현재형의 텍스트'로 느껴

집니다. 한순간에만 존재하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어떤 시간이 존재해요. 희곡은 그 시간을 향해, 무대를 향해 건네는 하나의 문장을 찾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관객 경험 이야기할 때 특히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달에 다섯 편 정도를 보는데요. 극작이나 문예 창작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본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설명이지만, 공연이란 작가가 1년 동안 텍스트를 쓰고, 제작자는 6개월 넘게 연구하고, 배우는 2개월 넘게 연습하며 만들어지는 것이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람의 고민과 질문의 레이어가 쌓여 관객이 의지할 수 있는 감정과 감각을 전달해주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연구와 노력, 즉 굉장한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을 보고나면 장면을 쪼개서 노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대가 공부가 되고 수업이 됐습니다. 잘 몰랐던 장면도 써놓고, 잘 몰랐던 대사는 외워버립니다. 그러고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과정이 모두 수업이 됐습니다.

등단작인 '채식상어'와 최근 낭독공연으로 올린 '하울링'은 베트남에서 온 난민, 연변에서 온 이민자 등을 초점화해 그려낸 듯합니다. 인물의 배경에 디아스포라적 이동을 주요하게 활용하는 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있어 현재도 이와 관련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동뿐 아니라, 사실상 비워진 공간과 정적에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살았던 자리, 시간이 스쳐간 공간을 보면 그 안에 아직 불러 나오지 않은 인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그런 '자리가 남긴 감정'이 저를 가장 강하게 움직인 순간이었어요. 어느 공간에 쌓인 시간,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존재를 기억하는 걸 좋아합니다. '채식상어'의 경우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최상류층이 파티를 연다는 설정 자체가 실은 기막힌 일인데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더욱이 우리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난민 소녀가 등장하죠. '하울링'은 오래된 페아파트에서 나가지 않고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이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 아파트 지하실에서 버려진 개들과 살게 됐는지 아무도 할머니의 과거를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아파트 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요. 그와 관련

한 서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소의 공공성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페아파트는 비워진 공간인데 이전엔 누군가의 소유지였고, 누군가가 시대를 걸쳐 삶을 누적해온 자리이고요. 그러나 현재는 그곳 지하실에 있는 할머니를 끌어내려는 힘이 개발 정책 등에 의해 작용하고 있어요. '채식상어'의 박물관이나 '인극인데 두 명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의 극장도 공공의 장소이죠. 특히 극장은 저와 같은 작가들이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극장의 공공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갈망과 사랑이 복잡하게 뒤얽혀있는 작가를 그려나갑니다. 패배했지만 여전히 갈망하는 작가네요.

'남겨진' 혹은 그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군요. 본인에게 항상 남아있는 것, 혹은 남겨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존재에 관한 질문을 늘 중심에 가지고 있는데요. 비워진 공간에 있던 시간과 존재에 매력을 느끼는 편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금도 계속 질문을 하며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인극인데 두 명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또한 존재와 정체성에 관해 작가와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질문하는 희곡이고요. 메타극 형식을 차용한 것도 '인물이 자기 존재를 질문하는 순간'을 그리기 위함이었구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희곡이 여전히 어려워요. 특히 이 작품을 쓰면서 메타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할 게 많다고 느낍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배우의 움직임뿐 아니라 퍼포머의 동작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 움직임은 희곡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지문'이 될까요?

희곡에 포함된 지문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대사로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피나 바우슈로 인해 퍼포먼스에 관심이 커졌어요. 관객에게 주인공 중심 서사를 보여주며 따라와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러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희곡이지만, 최근에는 현대 언어로 공간과 대사, 움직임 사이의 교차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희곡을 쓰며 매번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알게 된 것들을 제 상상과 함께 펼쳐나가기에는 희곡이라는 텍스트가 가장 적절한 장르라고 생각하고요.



AI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AI 시대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10명치 일을 혼자 해치워서가 아니다. 일반 소비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AI 서비스에 접속해 과제와 업무를 같이 하고 사주를 보고 상담받고 자신의 일상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친구로 삼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AI 대중화의 서막이 올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AI에게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 불안감 속에서 인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일', '나만의 것', '나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의 노력은 AI의 노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다. AI는 거의 모든 레퍼런스를 검토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지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반면 한 개인이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나라는 한계 속에서, 나의 경험이라는 한 줄에서, 내 몸뚱이라는 부족함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공알만 한 내 것을 만들고 있다.

지금의 러닝·마라톤 열풍이 여기에 해당된다. 40대에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평생 달려본 적도, 운동을 해 본 적도 없지만 신발을 사고 양말을 사고 운동복을 사서 코칭을 받는다. 처음으로 5킬로미터 마라톤에 도전해서 완주하고 메달을 따고 다음에는 10킬로미터 마라톤에 도전할 꿈을 꾀다. 그러다 무릎이 나가서 병원을 다닐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몸으로 느끼는 성취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것이 된다.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인간의 실체성이다.

인간이 자신의 실체성을 느낄 수 있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자기 손과 발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날로그 취미, 예컨대 뜨개와 필사가 뜨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잔치, 대표적으로 야구장, 축제, 박람회가 부상한다. 인간이 마치 AI에게 "너는 몸이 없지? 나는 몸이 있어 직접 느낄 수 있어"라고 항변하는 듯하다.

AI에 의지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AI와 다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함에 천착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이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나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 향유자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전부라면 '문화'라고 이름 붙인 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나아진다 한들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문화를 찾게 만든다.

AI 시대, 문화는 오래된 자신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간 공동체에 기여한다.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현장감과 연대감, 몰입감과 카타르시스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AR과 VR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가는 박물관·미술관·극장과 축제 현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술 발전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반가사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현판에 써 있는 것처럼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한계이자 특권이다. 문화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있고, 그 한계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AI의 대중화 서막, 사람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증가하는 동시에 안정감을 찾는 행동 역시 증가하고 있다. AI와 디지털에 자리를 모두 내주지 않으려는 듯 아날로그가 부상하고 있다. 문화는 어느 때보다 인간 공동체에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 문화의 속성인 현장감과 연대감, 몰입감이 인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위로를 선사한다. 문화는 몸을 가진 인간의 실체성을 독려하고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 AI의 속도와 용량에 비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의해 문화는 만들어지고, 그러한 인간에게 수용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2025 K-BOOK 페스티벌

도쿄에서 매년 열리는 K-BOOK 페스티벌은 이제 한국문학이 일본 독자와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도 꽤 입체적인 현장으로 자리잡았다. 책 냄새, 사람 냄새, 번역의 고뇌와 질문이 한 데 섞이는, 말하자면 ‘한국문학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과 시간이다. 이 축제는 단순히 “신간 나왔습니다”를 외치는 행사가 아니다. 번역과 출판, 독서와 대화, 기록과 현재가 서로 어깨를 툑툑 치며 교류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다소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방식이 이것뿐이어야 할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방 안에서 서성이고 싶지는 않았다.

K-BOOK 페스티벌의 시작은 2019년이다. 일본에서 한국문학 번역 출판은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흩어져 소개되고 있었다. ‘이쯤이면 다 같이 한번 모여야 하지 않을까.’ 출판 일을 하면서 줄곧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다. 출판사와 작가, 번역가와 독자가 한 공간에 모여 한국문학을 핑계로 서로 얼굴을 트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작은 시도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도는 첫해를 치르고나서 곧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시간을 만났다. 모이지 말라는 시대에 ‘모이자’고 만든 축제라니, 기획자로서는 꽤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걸 멈춰야 하

↓ 2025 K-BOOK 페스티벌 현장



→ 한국문학 대표 작가가 참여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나, 아니면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해야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장을 펼쳤다. K-BOOK 페스티벌은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더 단단해졌다. 2025년, 그렇게 7회를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끈질김도 하나의 기획력이 아닐까 싶다.

올해 K-BOOK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지점은 ‘영화와 문학의 접점’이었다. 한국영화를 좋아하지만 한국문학에는 아직 낮은 관객들—현장에서 늘 체감하듯, 일본에서는 한국영화 팬의 숫자가 한국문학 팬보다 훨씬 많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학 쪽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작이 있는 한국영화 세 편을 골라 도쿄의 전문 영화관까지 직접 대관했다. ‘책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일단 영화로 부르자.’ 그 게 이번 기획의 핵심 전략이었다.

영화라는 익숙한 언어를 통해 ‘이 이야기에 원작이 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소설과 작가의 세계로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배우이자 출판사 ‘무제’의 대표인 박정민을 초청한 프로그램은 예상을 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배우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학 원작의 힘은, 같은 텍스트를 다뤄

온 출판인에게도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문학이 영상으로 변주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장르의 벽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시도는 한국의 지역 출판사를 초청한 것이다. 늘 서울을 중심으로 설명돼온 한국문학의 이미지에서 한 발짝 비켜서고 싶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출판사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체온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해온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이 가져온 책은 특정 지역의 기억이자, 일본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한 작가 이벤트 역시 잊을 수 없다. 시인 나태주와 소설가 이승우·백수린·최은영 등 세대와 문체, 세계관이 전혀 다른 작가를 한 프로그램에 묶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 조합, 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바로 그 ‘과함’이 이번 기획의 미덕이 되었다. 독자들에게 작가는 최고의 선물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은 김하나·이옥선 모녀의 토크쇼였다. 세대와 경험, 기억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그 대화는, 기획자로서 ‘아,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장면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특히 올해의 주제인 ‘우리 모두 다 같이^{まじわる}’라는 문구를 70대 작가 이옥선에게 손글씨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축제 준비 중에 가장 먼저 청진 일기도 하다. 손글씨를 건네받던 순간, 우리의 페스티벌은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

K-BOOK 페스티벌이 지나온 7년은 곧 질문이 쌓여온 시간이었다. 한국문학은 어떻게 일본 사회와 만날 수 있을까, 번역은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문학은 다른 예술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작가와 독자, 번역가와 출판인,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친 수많은 얼굴들.

2025년 도쿄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책을 통해, 이야기로 인해—그리고 조금의 무모함과 꽤 많은 대화를 통해—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 다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2026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자 모집

서울시가 **21세~23세** 청년들에게
문화관람비 2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1세~23세 서울 거주 내·외국인

(200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최대 3년 이내 연령가산 시행

※ 생애 최초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5년 12월 22일 (월) 10: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BOOK

명곡의 뒤편길

여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국악 칼럼이라기엔 쑥스럽지만

티켓을 누르자, 추억이 하나둘 새어나왔다

낯말은 새가 듣고 낯말은 시가 좁는다

끝에서 마침내 시작되는 것

—고트머리에서 만물 상상하기

멈추면 보이는 것들

서울, 이질적인 충돌이 만드는 참신함

여운, 끼어들여지가 없는

유윤중 음악평론가, 전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나라 안팎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가 시작됐다. 그래도 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은 것이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해인 1791년은 그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영화 <아마데우스> 후반부. 자루에 담긴 모차르트의 시신이 마차에 실려 가는 가운데 슬픈 합창이 울려 퍼진다. 모차르트 ‘레퀴엠(진혼미사곡)’에 나오는 ‘라크리모사(눈물의 날)’다. 마침내 자루에 싸인 시신이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강렬한 “아멘”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살리에리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아멘” 부분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이 아니다. 모차르트는 ‘라크리모사’의 첫 여덟 마디까지 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제자 쥐스마이어가 작업을 이어받아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완성했다. 많은 음악학자와 작곡가들이 쥐스마이어의 악보를 ‘모차르트답지 않다’고 여겨 자기 나름의 ‘모차르트 레퀴엠’ 악보를 만들었다.

오늘날 나와 있는 이 곡의 음반 대부분은 쥐스마이어의 악보대로 연주하지만, 요제프 아이블러·프란츠 바이어·리처드 몬더·로빈스 랜덴 등이 완성한 다른 악보를 사용하는 음반이나 연주회도 많다. 당연히 ‘라크리모사’도 여덟 마디 이후의 선율은 각양각색이다.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가 1887년 아홉 번째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 곡의 운명을, 나아가 자신이 맞을 운명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이 곡을 자신이 사랑하는 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쓰고자 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는 1896년 세상을 떠났고, 4개 악장 중 피날레를 제외한 3개 악장의 악보가 완성돼 있었다. 고전주의 시대부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향곡은 4개 악장 구성이 표준이다.

그러면 마지막 4악장은? 주제 선율을 적은 여러 장의 스케치만 남았다. 흥미로운 점은 브루크너가 습관대로 이 스케치 악보들에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두었다는 것이다. 이 번호에 따라 스케치 악보를 읽어보면 대략의 구조가 느껴질 정도다. 이에 따라 몇몇 음악학자와 작곡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완성한 4악장 악보를 발표했다. 브루크너 자신은 “완성하지 못한 4악장을 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쓴 ‘테 데움(찬미가)’을 3악장 뒤에 연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이 교향곡 9번은 대부분 후대에 가필해 완성된 4악장도, ‘테 데움’도 없이 브루크너가 완성한 3개 악장만 연주되고 있다. 3개 악장만으로도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 웅대하고도 완결된 듯한 구도가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으로 알려진 교향곡 B단조를 1822년에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1악장과 2악장을 완성하고, 3악장 스케르초의 초고(120마디)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작곡을 멈췄다.

다음 해인 1823년, 슈베르트는 그가 자주 방문해 곡을 선보인 그라츠시의 음악협회로부터 명예 회원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완성 상태인 이 곡의 악보를 친구이자 협회 회원이던 안젤름 휘텐브레너에게 전했다. 그러고는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슈베르트도 남은 부분을 마저 작곡하지 않았고, 휘텐브레너나 협회의 누구도 곡을 완성해달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1828년 슈베르트는 31세의 아까운 나이로 눈을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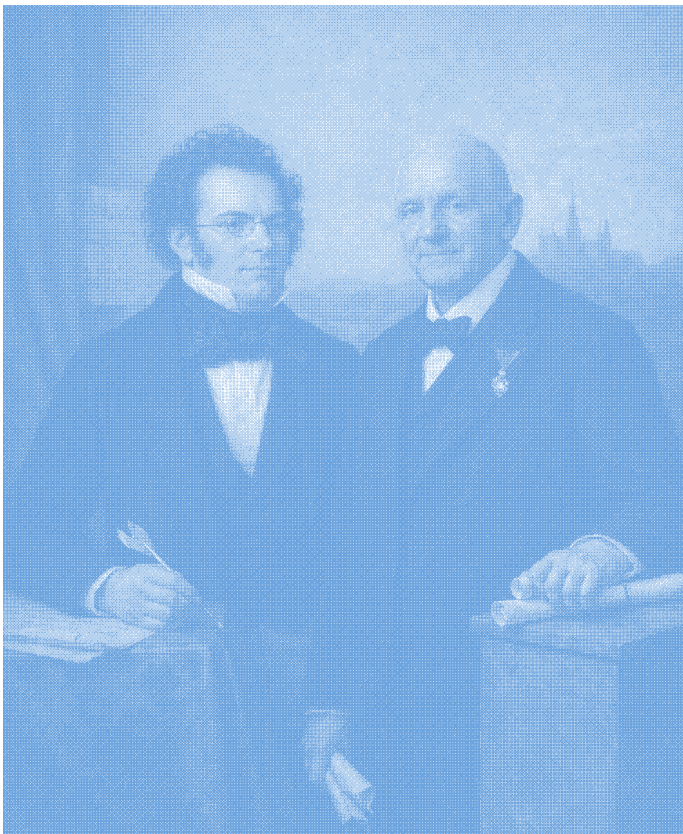
슈베르트가 자신의 벗들 곁을 떠나고 37년이나 지나 1865년, 슈베르트의 음악에 빠져 있던 빈의 젊은 지휘자 요한 폰 헤르베크가 나이 든 휘텐브레너를 찾아갔다. 헤르베크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태어났다. 그가 찾아갔을 때 휘텐브레너는 71세의 노인이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휘텐브레너가 잇을 뻔했다는 듯이 놀라운 얘기를 꺼냈다. “나한테 말이야, 슈베르트가 끝맺지 못한 교향곡 악보가 있는데…” 헤르베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휘텐브레너는 42년간 간직해둔, 누렇게 빛바랜 악보를 서랍에서 주섬주섬 꺼냈다. 이 곡은 이해 12월 빈에서 헤르베크의 지휘로 초연됐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과 마찬가지로 이 곡도 여러 지휘자와 음악학자들이 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악장은 120마디의 스케치가 남아 있었지만, 4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1928년 슈베르트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영국 컬럼비아 레코드와 빈 악우협회가 이 곡의 3·4악장 완성을 목표로 한 국제 작곡 콩쿠르를 열었다. 영국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프랭크 베릭이 쓴 3·4악장이 1등상을 받았지만 초기의 영광과 달리 갈수록 인기가 떨어져 잊히다시피 했다. 유명 지휘자 펠릭스 바인가르트너도 1934년에 자기 버전의 이 곡 완성본을 선보였다.

20세기 후반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영국 음악학자 브라이언 뉴볼드의 작업을 들 수 있다. 3악장은 슈베르트의 스케치가 있으므로 기존의 작업들도 슈베르트의 색깔에서 크게 떨어진다. 뉴볼드는 슈베르트가 쓴 극음악 ‘로자문데’의 간주곡 1번을 이 곡의 4악장으로 가져왔다. 이 간주곡은 B단조로 돼 있어 미완성 교향곡의 조성과의 일치하며, 이전에도 ‘극음악의 간주곡으로 쓰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슈베르트가 다른 목적으로 쓴 곡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돼왔다.

유명 지휘자 찰스 매킨러스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이 뉴볼드의 완성본을 녹음하는 등 이 작업은 긍정적인 반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1·2악장의 심오하고 낭만적인 드라마가 가져올 마지막 악장의 미학적인 길



이에 ‘로자문데’의 간주곡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늘날에도 이 곡은 대부분 1·2악장만 연주된다. 어떤 음악학자나 지휘자들은 “2악장 끝부분의, 멀리 떠나는 듯한 여운은 그 뒤에 다른 악장이나 선율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만든다. 슈베르트도 그래서 3악장을 쓰다가 그만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처럼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도 미완성 상태 그대로 아름답다.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이 곡들은 그 자체의 유기적 구조를 갖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됐다.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굳이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삶도, 우리가 새로 꾸려나갈 한 해도 그런 것 아닐까. 당초의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끝에는 아름다웠다고, 부분적인 결실이라도 값졌다고 말할 수 있는 한 해를 모두가 맞이하기를 소망한다.

미완성의 미학을 감상하고 싶다면

2026 서울시향 신년음악회
1월 9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야프 판 츠베딘(지휘),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2악장까지),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서울시향 필리프 조르당의 브루크너 교향곡 9번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 롯데콘서트홀
1월 30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필리프 조르당(지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메타모르포젠', 브루크너 교향곡 9번(3악장까지)

티켓을 누르자, 추억이 하나둘 새어나왔다

송현민 음악평론가

공연계 관계자는 아니었고, 그냥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우연히 그의 사무실에 들렀는데, 냉장고에 추억의 사진과 그간 본 공연 티켓이 줄줄이 붙어 있다. 무심코 눈길이 갔고, 넋지시 물었다. “공연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는 티켓을 한 장씩 손끝으로 짚어

보며 말했다. “이 공연을 봤던 날에는요, 공연 끝나고 봄비가 내렸어요. 우산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전 생애 처음 본 발레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아, 이전 친구랑 크게 싸우고 화해한 날이네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는데, 그에게는 추억의 보따리였다.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티켓을 하나씩 누르는 그의 손은 마치 추억의 버튼을 눌러 자신만의 추억 극장의 막을 여는 것 같았다.

티켓의 ‘기능’이 끝나는 곳에서, ‘기억’은 피어난다

내게 티켓은 사무용 도구에 불과하다. 공연을 보고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인 내게 티켓은 ‘공연장 입장 확인서’에 가까울 뿐이다. 일상에서 쥐고 있는 마우스에 애뜻함을 부여하지 않듯, 상의 주머니에 꽂힌 볼펜에 추억을 담지 않듯, 나는 티켓에 의미를 부여해본 적이 별로 없다. 취재를 가면 관계자에게 티켓을 받으며 안부를 묻고 답한다. 그렇게 그 작은 종이는 잠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가, 곧바로 업무 용품이 된다. 물론 나도 가끔은 것처럼 티켓을 ‘재활용’할 때도 있는데, 대개 책갈피용이다. 크기도 딱 좋다. 하지만 그가 ‘기억’을 담을 때, 나는 그저 작은 표식으로서의 ‘기능’만 챙길 뿐이다. 티켓이 내 책 속에서 하는 일은 ‘여기까지 읽었음’을 표시하는 것뿐.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에게 티켓은 하나의 기념품, 즉 굿즈였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공연장에서는 직업인으로 냉정하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만 가면 태도가 달라진다. 전시를 보는 것만큼이나 굿즈를 고르는 데도 진심이다. 전시실을 몇 바퀴씩 도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엔 꼭 아트숍에 들른다. 도록 한 권은 기본, 몇 장의 엽서와 사용하지도 않을 머그잔 하나를 꼭 챙긴다. 어느새 굿즈를

고르는 일은 나만의 ‘전시 뒤풀이’가 됐다. 그걸 사서 집에 온 순간, 전시는 내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심정에 심분 공감한다. 그리고 그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해 봤다. 티켓을 굿즈처럼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송년 국악 공연의 티켓에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정성스러운 문양을 넣고, 신년 음악회의 티켓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담는다. 공연의 성격에 따라 종이의 질감도, 색도 다르게 한다. 그러면 티켓은 더 이상 ‘버리는 종이’가 아니라 ‘보관하는 물건’이 된다. 한마디로, 티켓의 굿즈화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데는 국립국악원에서 간혹 접하는 굿즈의 변화도 한몫했다.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 조금 촌스럽거나 형식적인 물건들이 많았다.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까



지는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실히 달라졌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무엇보다 ‘국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다. 고가의 상품도 아닌데, 혼자 간직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굿즈의 상품화가 잘되면 어떨지 생각도 든다. 이때마다 늘 떠오르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넓고 쾌적한 전시 공간과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상품관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다. 그만큼 굿즈가 불티나게 팔린다. 물론 본질적으로 공연·교육·연구·보존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립국악원과는 상황이 다르다. 국립국악원에서 굿즈 제작과 유통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운 구조에 가깝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굿즈의 역할은 예술계 곳곳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다.

굿즈가 있는 곳에서 애호가가 태어난다

생각해보면 국립국악원에서 나만의 굿즈를 모은 적이 있다. 고교 시절이던 1990년대 중후반에 나는 공연을 보러 갈 때마다 국립국악원 1층에 위치한 가게에 매번 들렀다. 악보나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매번 부지런히 구매한 것은 음반이었다. ‘굿즈’보다 ‘기념품’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웠던 당시, 그것은 나만의 굿즈였고, 국악을 듣고 공부하는 데 나의 귀를 잡아준 훈련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 음반의 음원이 온라인 공간으로 무심히 들어와 무료로 유통되는 지금, 그것은 나만의 추억팔이 물건들이 돼 서가의 한구석을 장식하고 있다. 그때 그것들을 왜 그리 열심히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이 끝난 후 돈을 탈탈 털어 구매한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나도 공연 티켓을 애지중지 보관했다. 시인이 되고픈 이는 책 사이에 낙엽을 꽂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는 책 사이에 비

상금을 쫓아두듯, 고교 시절부터 평론가가 되고 싶던 나는 그때 애끼던 전공 서적 사이에 티켓을 늘 꽂아두었다. 지금도 새벽에 글을 쓰다가 우연히 집어 든 책에서 1997년, 1998년, 1999년이라고 적힌 티켓이 툭 떨어지면, 그 순간을 입구 삼아 추억의 터널로 하염없이 달리게 된다.

어쨌든 국악은 공연장 안에서만 살아남는 예술이 아니다. 지금의 관객은 공연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경험을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때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국악을 일상으로 이사하는 작은 문이 된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다음 공연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국악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 그의 냉장고에 붙어 있던 티켓을 떠올려본다. 그 작은 종이들은 한 사람의 시간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국악도 그런 증언을 가질 자격이 있다. 소리는 흘러가도, 기억은 남고 싶어 한다.

끝에서 마침내 시작되는 것 —끄트머리에서 만물 상상하기

오은 시인

2025년의 끄트머리에서 이 글을 쓴다.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끝의 머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끝에도 머리가 있다니,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만난 최종 보스가 연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머리를 보기 위해 그간 오랜 여정을 이어온 기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가차 없이 저 머리를 쳐야 할까, 다정함을 그득 담



아 쓰다듬어주어야 할까. 기사는 지금 당황하고 있다. 그는 끝에 왜 다다라야 했는지 이제야 질문한다. 어물쩍대며 끝에서 고작 시작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끝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시작을, 끝 다음에 다시 펼쳐질지도 모를 시작을. 그는 대체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돌아본다. ‘끝장’을 보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고 패망이고 파탄이기 때문이다. 기사는 정처 없이 헤매다 마주한 길의 끝들을 떠올린다. 끝장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르는’ 것이었다. 일도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끝이 그러했다.

끝에 와서야 여정이 분명해진다. 어떤 길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갈림길에서 망설인 끝에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도중에 지쳐서 쉬고 싶었으나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한 힘은 무엇이었는지. 끝이 있어서 다행이다. 돌아볼 수 있으니까. 어떤 발자국이 찍혀 있

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로질러 올 수 있던 곳을 에둘러 온 까닭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른 것만이, 이 앞에 다다른 것만이 중요하다. 도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끝에 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끝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시원섭섭하다’라는 형용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음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끝은 ‘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함께 종종 한 몸을 이룬다. 먼저 끝맺음. ‘끝맺음’은 “어떤 일이나 글의 끝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끝맺음 인사를 하지 않고 보낸 편지에 가슴을 쓸 어내린 사람이 있다면,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었던 사람이 있다면 맺는 일이야말로 끝이 갖는 아름다움을 알 것이다. 맺음은 매듭으로 거듭나니까, 그 매듭으로 인해 삶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니까. 끝맺음은 ‘끝맺이’로 표현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끝막음. ‘끝막음’은 “일을 끝내어 완전히 맺음. 또는 그 일”을 가리키는 단어다. 끝맺음과는 달리 완결의 느낌이 더욱 강하다. 이야기와 논쟁, 삶 등은 펼쳐지는 순간, 끝막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 끝막음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세에라자드가 매일 밤 천일야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삶과 이야기는 또 이렇게 끝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바둑에서는 “끝마감으로 바둑돌을 놓는 것”을 가리켜 ‘끝내기’라고 한다. 끝낸다는 말은 어딘가 의미심장하다.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때는 활기분하다가도, 그것의 두 번째 뜻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지게 하다”를 마주하면 자못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이어져 있던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 이는 소비, 소모, 소진 등 우리가 매일 하는 일하면서도, 그것이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아찔해지는 것이다. ‘끝내다’가 ‘끝나다’의 사동사이므로 ‘끝나다’도 살펴보아야 한다. ‘끝나다’ 또한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다. 시험이 끝나거나 일이 끝났을 때와 방학이 끝나거나 점심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품는 감정은 전혀 다르다. “본래의 상태가 결판이 나서 무너지거나 없어지다”라는 ‘끝나다’의 세 번째 뜻은 심지어 무시무시하기까지 하다. 관계의 종결과 회복 불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단어기 때문이다. 한편, “일의 끝을 다잡음”이라는 뜻의 ‘끝단속’이라는 단어는 끝에도 끝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끝빨다’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도저히 뜻을 짐작할 수 없었다. 꽃의 끝부분을 핏는 벌이 떠오르는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꿀 빨다’라는 은어 때문에 자동 연상되었을 것이다. ‘끝빨다’의 첫 번째 뜻은 “끝이 차차 가늘어져 뽕죽하다”이다. ‘빨다’의 세 번째 뜻 또한 이와 같다. 문제는 ‘끝빨다’의 두 번째 뜻이다. “어떤 일시적인 좋은 상태가 그 뒤로 내려오면서 쇠퇴하여 보잘것없다”가 바로 그것이다. 뽕죽해지는 게 날카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 몸뚱이를 잃는 일이기도 하다. 부피를 잃어가는 일은 몸집이 줄어드는 일이고, 이는 ‘똥발’이 사라지는 일과도 비슷하다.

‘끝없다’라는 단어는 “끝나는 데가 없거나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다. 끝이 없다니 근사하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유한하기에 시간을 비롯한 자원은 소중하고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기에 오랜만에 갖는 만남은 더욱 애틋할 수 있다. 끝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이를 의심하는 것도, 끝없는 바다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없음은 또한 호기심이나 재능처럼 무궁무진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갈등이나 전쟁처럼 막막함을 강조할 때도 사용된다. 끝없음은 그지없음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이때의 ‘그지’는 한도를 뜻하는 옛말이다. “한정된 정도나 일정한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볼게”라고 다짐하거나 “참는 데도 한도가 있어”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쓰인다. 끝없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정도를 벗

어나는 단어여서일지도 모른다.
끝에 다다라서야 끝눈을 볼 수 있다. ‘끝눈’은 “식물의 줄기나 가지 끝에 생기는 눈”을 가리킨다. 끝에 눈이 있으므로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어로 ‘끝코’가 있다. “뜨개질에서, 끝에 낸 코”를 일컫는 단어다. “일의 뒤끝을 수습하는 일”을 뜻하는 ‘끝갈망’이라는 단어도 있다.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물’은 “곡식, 과일,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과 “시절의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다. 끝물은 생기 없고 애처롭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끝물의 반대말인 ‘만물’을 갈망하게 만든다. 끝갈망 끝에서 마침내 첫 갈망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음과 끝의 인사가 둘 다 ‘안녕’인 이유는 이 둘이 애초에 하나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의 끝이 저기의 시작이니까, 겨울의 끝이 봄의 시작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경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계절을 따지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환절기를 허우적대는지도 모른다.

서울, 이질적인 충돌이 만드는 참신함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은 종종 새로움을 낳는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이름부터 이국적이다. 서울시가 이란 수도 테헤란시와 경

계 협력 등 우의를 다지며 1977년 ‘테헤란로’로 명명했다.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테헤란로의 과거 이름은 선·정릉이 있는 삼릉공원 일대를 지낸다고 하여 ‘삼릉로’였다. 테헤란과 서울의 공간적 교류에, 왕릉이 조성되던 조선 시대와 현재의 시간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자리잡은 호텔 ‘조선 팰리스’ 로비를 찾아가보자.
차로 도착해 주차장에서 나오든, 지하철 역삼역이나 선릉역에서 들어오든 조선 팰리스 입장객은 대부분 지하 1층의 전용 입구를 거치며 대단한 위엄을 마주하게 된다. 최고급 호텔의 수문장답다. 미국 작가 대니얼 아샴Daniel Arsham의 2019년 작 〈풍화된 푸른 방해석 모세상Blue Calcite Eroded Moses〉이다.
의자에 앉고도 높이가 260센티미터에 달하는 거구다. 근육이 우람하지만 살결은 매끈한 몸, 구불거리는 머리칼이 가슴까지 닿는 수염을 지나 무릎까지 덮은 옷 주름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아름다움이 탁월한 조각상이다. 이뿐이었으면 박물관에서 만나는 평범한 ‘옛것’이었으리라. ‘모세상’의 벗겨진 피부 아래로 희고 푸르스름한 수정들이 반짝인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땅을 파고 흙을 살살 건어내다 찾아낸 귀한 유물을 마주한 것과 같은 쾌감이 느껴진다.
이 ‘모세상’의 원본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유언에 따라 묘당을 꾸미기 위해 1513년부터 제작해 로마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의 조각이다. ‘피에타’, ‘다비드’와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으로 꼽힌다.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들고 마을로 돌아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숭배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모세의 정수리 쪽에 뿔이 솟아 있는데, 히브리어의 기록을 ‘뿔’이라 번역하는 이도 있고 ‘빛’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그 솟아난 영험함이 모세를 신성한 존재로 부각한다.
아샴의 모세상은 미켈란젤로의 것과 크기도 똑같다. 조각 속에서 수정이 드러나는 차이가 있을 뿐. 오른손에 든 십계명 석판 한 귀



조선 팰리스 지하 1층에 전시되고 있는 대니얼 아샴 〈풍화된 푸른 방해석 모세상〉 ©조상인

퉁이가 뜯긴 자리에서도 수정이 뼈죽이 자라나 있다. 이마 쪽에서 자라난 수정은 모세의 시선과 정확히 일치하며 호텔 엘리베이터 홀을 향하고 있다. 헛된 가치를 좇지 말라고, 근본적인 고귀함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라 일깨우는 듯하다.
이처럼 작가는 500년 전의 고전 조각을 차용하되, 옛것 안에서 돌아나는 새로움을 강조한다. 오래된 새것이요, 새로운 옛날이다. 작가는 이것을 ‘미래의 유물’이라 부른다. 현대 한국의 황금기를 보여주며 낙관적인 미래를 펼쳐 보이고자 한 조선 팰리스의 공간 개념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샴이 원본으로 삼은 미켈란젤로의 원본 ‘모세상’과 테헤란로의 핵심 문화유산인 선·정릉의 조성 시기 또한 비슷하다.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무덤인 선릉이 1495년에 조성돼 1530년에 정현왕후가 나란히 묻혔다. 11대 임금 중종의 정릉은 1545년 축조됐다. 아샴의 이 ‘모세상’은 선정릉을 옆에 둔 이곳에 놓일 운명이었던 것일까.
1980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난 아샴은 12세 때 허리케인이 마을을 뒤덮고 건물을 찢어놓는 것을 목격했다. 견고할 줄 알았던 땅과 집이 허망하게 파괴된 장면이 훗날 작업으로 이어졌다. 남미 이스터섬의 고대 모아이 석상을 보고서 우리가 사는 현재도 언젠가 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과 만나 아샴의 세계관인 ‘허구의 고고학the fictional archaeology’이 탄생했다. 카세트 플레이어·공중전화·구형 카메라·영사기 등 아적은 존재하지만 머지않아 사용하지 않게 될 물건들을 석고로 만들어 화산재 아래에서 발굴한 것처럼 설치 작업을 선보였고, 2020년 개인전 제목에 ‘3020’이라고 적어 현재의 관람객을 미래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현재가 ‘미래의 과거’라는 의미였다. 디올·티파니·포르쉐·아디다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작가다.
오래된 미래와 오래된 새것. 그 이질적인 충돌이 만드는 참신함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12권의 [문화+서울]을 함께 만든 안미영,
나혜린 담당자와 필자 여러분, 강민정, 김병구,
임효진, 최근우 사진작가, 그리고 디자인이끼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서울]이 되겠습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거금을 들여 새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다짐과 함께 시작해보는 한 해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UNDERLINE

오랜만에 [문화+서울] 최종 교정에 동참하며 처음과
끝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번 호 오은 시인의 칼럼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 해가 끝났다는 아쉬움에도,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설렘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CONTRIBUTOR

기획과 계획을 실행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아무래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 년간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내 곁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한 해를 다짐해봅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LAST SCENE

장소 협조해준 후배에게 고마움을.
손민지 디자인이끼 대표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교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
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
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